

4.19혁명

4.19혁명

| 김정남 지음 |

펴낸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펴낸이 | 박형규 펴낸일 | 2003년 12월 30일
주소 | (100-120)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소리통 | (02)3709-7500 글통 | (02)3709-7516 | <http://www.kdemocracy.or.kr>
맵시 | 내일기획 (02)2279-2711 찍은곳 | 내일기획
사진자료협조 | 4.19혁명기념도서관, 박용수 사진집 「민중의 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역사 다시 읽기’를 펴내며

역사는 과거를 빌미로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가로막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는 퇴행의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역사는 바로 오늘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무엇이며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를 가늠하는 생생한 현실인식입니다. 오늘의 삶과 사회를 직시하고 내일의 변화와 대안을 찾기 위한 항해의 나침반이자 지도입니다. 역사는 기억을 뛰어넘는 성찰이며, 지난날을 오늘의 눈으로 다시 보는 동시에 오늘을 재인식하는 진리 탐구의 망원경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의 과제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면 해방 후 우리 사회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확립과 민족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여전히 오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민주화운동 역사를 지금 이 곳에 불러들이는 이유는 이같은 과정이 우리 모두의 숙제를 풀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 ‘역사 다시 읽기’ 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를 깊어지고 나갈 푸릇푸릇한 젊은이들이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인식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데 나름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차례

■ 머리말	6
1. 4월혁명이 오기까지-이승만 정부의 성격과 한계	9
2. 부정선거의 음모와 진행-4.19혁명의 직접적 원인	21
3. 들불처럼 번져가는 항의-2.28에서 3.15까지	29
4. 선거는 무효다-3.15부정선거와 마산	39
5. 아아! 김주열-김주열의 죽음과 제2차 마산의거	55
6. 자유, 너 영원한 활화산이여!-4.18 고려대시위	65
7. 4.19, 피의 화요일-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물결	73
8. 이승만 정권의 붕괴-4.25교수단 시위와 민권의 승리	89
9. 4.19,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103
10. 4.19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아직 끝나지 않은 혁명	113

■ 머리말

우리 역사에는 움츠렸던 겨울도 있었고, 번성했던 여름도 있었다. 4.19혁명으로부터 시작한 30여년에 걸친 민주장정(民主長征) 끝에 우리는 일찍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민주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했다. 그리고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압축적인 산업화를 민중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냈다. 거기에다 21세기 들어 새로운 문명사적 변화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맞고 있다. 세계의 변방에서 새로운 문명의 중심으로 한반도는 지금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만 한다면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주연배우로 세계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겠는가.

위대한 한민족시대, 그 출발점에 바로 4.19혁명이 있다.

독립운동가요 민족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찍이 한국의 역사를 나(我)와 나 아닌 것(非我)의 투쟁으로 보았다. 나 자신의 정체성은 물론 우리가 지키고 키워나가야 할 모든 것이 바로

‘나’ 요, 우리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것이 ‘나 아닌 것’ 이라는 것이다. 밖으로는 국권을 위협하는 침략적인 외세가 ‘나 아닌 것’ 이요, 안으로는 침략적인 외세에 영합하고, 우리 공동체의 자기실현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나 아닌 것’ 이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나’ 가 민족, 민주, 민중, 통일 지향적인 것이라면 ‘나 아닌 것’ 을 반민족 외세의존, 반민주 독재, 반민중 부패특권, 반통일 분열주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4.19 혁명은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의 ‘나 아닌 것’ 에 대한 민족, 민주, 민중 통일을 지향하는 ‘나’ 의 투쟁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반민주 독재’ 에 대한 ‘민주’ 의 투쟁이 두드러진 혁명이었지만, 4.19 직후 민족통일운동, 민중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것만 보아도 4.19혁명의 복합적 성격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민이 인간답게,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인간존엄을 가지고 자기를 실현하는 삶의 민주적 조건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지 아니하는 정치권력을 폐지할 수 있는 국민의 혁명권을 담보로 하여 존립한다. 4.19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혁명권을 발동하여 국민이 원하지 아니하는 정치권력을 폐지시킨 장엄한 국민혁명이었다. 4.19혁명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 국민의 민주적 성숙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온 세계 인류의 주목과 존경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4.19혁명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가 그날로 완성, 결실을

본 것은 아니다. 바로 1년 뒤에 온 5.16군사 쿠데타로, 그 이후 30여년에 걸친 '거꾸로의 역사'를 겪어야 했다. 4.19의 혁명이념은 60년대의 6.3사태, 70년대의 반유신투쟁, 80년대의 5.18민중항쟁과 6월 민주항쟁을 통하여 그때마다 불사조처럼 되살아났다. 4.19혁명은 그 이후에도 의연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4.19혁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흔히 역사를 과거와의 대화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옛날 얘기도 아니요, 단순한 대화만도 아니다. 과거와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음미하는 작업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전망하고 예언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4.19는 그런 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예언적 사건이었다. 또한 4.19는 이 나라 이 국민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다.

4.19 이후 30여년에 걸쳐 한국국민이 피흘려 쟁취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격언을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무는 시민의 손으로 심어지고, 시민의 피로 양육되고, 시민의 칼로 수호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이제 4.19에로의 역사체험에 나서보자.

1

4월혁명이 오기까지

이승만 정부의 성격과 한계



우리도 나서자-초등학생의 시위행렬

1960년의 4월혁명은 1948년의 정부수립으로부터 12년만에 일어난 일대 정치사건이었다. 4월혁명은 이승만의 제1공화국 정부에 대한 반대투쟁이었고, 동시에 그것에 대한 부정이었다. 4월혁명은 단순히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대와 부정의 차원을 뛰어넘어 제1공화국의 잘못된 출발에 대한 거부는 물론 우리 민족 공동체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까지를 함축하고 있다. 참다운 민족의 해방과 독립, 그리고 우리 손으로 세우는 정부가 어떤 것이어야 했느냐는 것까지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한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4월혁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4.19가 부정, 반대하고 있는 이승만 정부의 성격과 형태를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것은 이 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근대국가요,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민주공화정이었다. 그것은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벅찬 감동이었고 또한 마땅히 축복받을 일이었으나 바람직한 출발은 되지 못했다. 우선 단정(單政), 즉 남한만의 단독정부로 출발한 것이다.

1945년의 민족해방이 우리 민족의 자력에 의해 쟁취된 것이 아니었던 탓으로, 해방과 동시에 국토는 분단되고 민족은 분열되는 비운을 맞았다. 신탁통치안의 찬반 대립을 거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어 국제연합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통한 한국정부 수립”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이승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나섰던 것이다. 그것이 비록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모처럼 해방·독립을 맞이하는 한민족으로서는 마땅히 남북한 통일정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모색했어야 했다.

이승만과 함께 민족지도자로서 쌍벽을 이루고 있던 김구 임시정부 주석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결국 분단을 영구화하고 민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눈물겨운 남북협상운동을 전개했다. 삼팔선을 베고 누울지언정 분단은 안 된다는 백범 김구를 구심점으로 한 단정(單政) 반대세력이 불참한 가운데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7월 17일 대통령 중심제를 권력구조로 하는 헌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승만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내외에 선포되었다 제1공화국의 막이 오른 것이다.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의 성격은 무엇보다 반통일 정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출발부터가 그렇다. 설사 단정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으나, 이승만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공, 반통일의 길로 매진해 나갔던 것이다. 이승만의 반공주의는 미국의 대공산권 포위전략과 일치하는 것으로 미국의 절대적 정치경제적 보호와 지원을 받았다. 반공이라는 명분 아래, 1951년의 거창양민학살 사건을 비롯한 정치권력에 의한 학살과 국민탄

압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제1공화국이 갖는 또 하나의 성격은 반민족적이었다는 데 있다. 이승만은 비록 오랜 기간 동안 독립투쟁을 전개해 오긴 했지만, 그의 독립노선은 외교론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오랜 해외생활로 국내에 정치기반이 없던 이승만은 지주를 중심으로 현실적 정치기반을 갖고 있던 한민당과 결합한다. 해외 독립투사의 이미지와 한민당이라는 현실적인 세력기반이 야합한 것이다. 반민족 친일행위에 대한 단죄를 목적으로 1948년 10월에 발족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는 활동 초기부터 이승만 정부의 집요한 견제를 받더니, 이듬해 8월 31일, 이승만에 의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이로부터 친일파가 다시 세상을 활보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이 제1공화국의 사법, 행정, 경찰의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 4.19혁명이 나던 1960년 현재, 경찰의 인적 구성은 일본경찰 출신이 총경의 70%, 경감의 40%, 경위의 15%를, 그리고 전국 경찰관 약 3만 3천명 가운데 사복경찰의 약 20%와 정복경찰의 10%가 일본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경찰 조직이 이승만 정부를 지탱하는 핵심으로 3.15부정선거를 기획·집행했던 것도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구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민족정기를 찾는다는 것은 나무 위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노릇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격은 반민중적이었다

는 데 있다. 이승만 정권은 정부수립 후 8.15해방으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남기고 간 재산, 즉 적산(敵産)을 터무니없이 싼 값으로 그들에게 추종하는 세력에게만 불하하였다. 이로부터 반민중적인 부패특권의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6.25전쟁 이후는 물론 그 이전부터 미국의 원조는 한국의 국민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절대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 원조물자와 자금을 분배하는데 정부권력이 항상 개입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외국 원조물자의 배분은 특권과 특혜를 나누어 주는 것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권력이 절대화함에 따라 부정부패는 더욱 심화되어 갔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당시의 산업을 보면 방직·방직·제당·제분 등의 소비재 산업이 거의 전부였는데, 그 원료를 전부 미국 원조에 의존했기 때문에 국내산업, 특히 농업은 전적으로 파괴되어 버렸고 한국은 미국의 소비재 및 농산물 시장으로 전락하였다.

물론 원조는 고마운 일이었다. 그러나 원조된 물자나 자금은 자본의 운동논리에 따라 한국의 국민경제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미국으로부터의 잉여농산물 도입은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농민생활을 악화시키고 한국농업을 피폐케 했던 것이다. 가령 1959년의 국내 식량 부족량은 52만 석이었으나 이 해에 도입된 잉여농산물 양은 1백 89만 2천 석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아래서 농민들은 희망을 잃고 날이 갈수록 이농(離農)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결과로 실업

자가 해마다 늘어나 1959년도에 23.4%이던 실업자가 60년도에는 23.7%로 증가하였다.

4.19를 전후하여 이 나라에는 약 2백 50만 명의 완전 실업자와 50만 명의 잠재실업자, 20만 명의 전쟁고아, 그리고 3백만 명의 절량농가, 즉 먹을 양식이 끊어진 농가가 농촌을 떠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1961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72달러였으니 민중의 생활이 어떠했을지 헤아리기에 어렵지 않다. 이렇게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실업자 등 국민 대다수를 점하는 민중은 더는 참을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몰리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이 갖고 있는 성격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또 4.19 혁명에 직접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반민주주의 독재였다. 김구를 제거한 뒤의 이승만은 자신이 국부(國父), 즉 건국의 아버지라는 망상에 빠져, 가부장(家父長)의 권위로써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였다. 신생 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민주적 기틀을 확립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권력강화와 집권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거기에 노령의 그를 둘러싸고 ‘인(人)의 장막’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나라 건국부터가 이승만의 독선과 집권욕으로 처음부터 굴절되기 시작했지만, 특히 이승만이 부당한 집권연장을 피하여 독재자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 것은 1952년의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 부터였다. 그때 이 나라는 6.25전쟁의 와중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1952년 1월 피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압도적 표차로 부결 당하였다. 당시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출 방식은 국회에서의 간선(間選)이었다. 국회의 의석 분포로는 그 해 8월에 임기만료 되는 이승만의 재집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정부의 개헌안이 부결되자 이승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2월부터 부산을 중심으로 ‘국회해산’ 과 ‘국회의원 소환’ 을 요구하는 관제(官製)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정부의 책동이 노골화되자,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반(反)이승만 세력은 그해 4월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재차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5월 25일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로 연행하는 등 극도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는 7월 4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고 야당의 개헌안에서 일부를 발췌한 이른바 ‘발췌개헌안’ 이란 것을 통과시켰다. 이승만은 이때부터 국민의 의사를 폭력으로 짓밟는 독재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승만은 국회를 장악하려면 무엇보다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파동 기간 중에 추종세력을 중심으로 자유당을 결성했다. 이승만의 첫 집권에 정치적 지지기반이 되었던 옛 한민당 세력은 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반 이승만으로 이미 돌아서 야당의 길을 걷고 있었다. 자유당은 1954년 5.20 민의원(당시의 헌법상 국

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참의원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의원 선거에서 노골적인 관권선거에 힘입어 대거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중 30여 명을 포섭하여 재적의원 3분의 2의 개헌선에 해당하는 의석수 1백 36명의 절대 다수당이 되었다.

이제 자유당은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다시 고쳐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피하기 시작한다. 1956년 8월로 예정된 제2대 대통령의 임기만료 후에도 계속 집권하기 위해 1954년 9월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사실상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헌안은 그해 11월 27일 표결결과 개헌 정족수에서 한 표가 모자라 부결 선포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이므로 사사오입하면 135표가 개헌안 통과선”이라는 억지 논리로 이틀 뒤 다시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다.

이때부터 민심은 돌이킬 수 없으리만큼 이승만과 자유당을 떠나기 시작했다. 반대로 이승만과 자유당은 더욱 반민주·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내걸고 대통령 후보에 신익희, 부통령 후보에 장편을 내세웠다. 그러나 ‘반이승만 정서’로 국민의 여망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신익희가 애석하게도 유세도중 급서(急逝)하였다. 이 때문에 대통령에는 자유당의 이승만이 당선되었으

나 부통령에는 자유당 후보 이기붕이 낙선하고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이승만과 자유당의 무리와 횡포는 날이 갈수록 그 도(度)를 더해갔다. 1956년 9월 28일에는 장면 부통령에 대한 저격 미수 사건이 발생하였다. 1958년에는 5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이승만을 위협했던 조봉암이 간첩과 연루되었다는 세칭 ‘진보당 사건’으로 이듬해 7월 31일 처형되었다.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는 무더기표, 표바뀌치기, 부정개표 등 온갖 부정행위가 자행되어 선거소송만도 1백 5건이나 제기되었다. 이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는 이승만 정권이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기만 했다.

1958년 8월 정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야당과 언론이 “이는 2년 후 실시될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언론을 말살하려는 책략”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듯이 이는 반공을 빙자한 독재권력의 강화책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야당은 며칠 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12월 24일 2백여 명의 무술경위를 동원하여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여당 단독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9년 1월에는 이승만의 비호 아래 반공청년단(단장 신도환)이 결성되었다. 반공청년단에는 정치깡패들을 비롯하여 각종 조직 폭력배들이 가입, 정부와 자유당의 비호를 받으며 반정부 인사들

에 대한 공포 분위기 조성과 야당 집회에 대한 폭력 파괴 활동을 벌였다.

같은 해 2월에는 경향신문 필화사건이 일어났다. 반정부적인 논설과 기사를 문제삼아 정부는 경향신문을 4월 30일자로 폐간 처분하였다. 경향신문은 1960년 4월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야 비로소 복간될 수 있었다. 독재권력 하에서 크고 작은 언론탄압은 수도 없이 또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졌다.

이 무렵 문화예술계에는 불량배를 중심으로 반공예술단이 조직되고 영화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라는 이승만 홍보영화가 만들어 지는가 하면 1960년의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이승만 박사, 이기붕 선생 출마환영 예술인대회’가 열리고, 이름 있는 문인들이 번갈아가며 이승만 정권의 제2인자 이기붕을 찬양하는 ‘인간 만송(晩松, 이기붕의 호) 이란 글을 써 이른바 ‘만송족(晩松族)’을 형성하였다.

한편 학원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고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9월, 대통령령으로 중고교와 대학에 학도호국단을 창설하였다. 이는 문교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철저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조직이었다. 전국의 학교를 묶어 일사불란한 통제 아래 두고 걸핏하면 ‘북진통일 쫓기대회’, ‘이승만 박사 재출마 요청 쫓기대회’ 등 관제시위에 동원하였다. 정부는 이같은 어용학생운동을 조종하는 한편으로 50년대 말에 오면서는 더욱 삼엄한 학원사찰 활동을 펴고 있었다.

이처럼 당시는 사회 일반이 어느 한 군데 예외없이 무거운 잣빛 상황에 놓여 있었다.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사회는 끓어 있었고 국민은 불만 속에 있었다. 1959년에 발표된 미국의 콜론 보고서는 이때의 한국 현실을 이렇게 적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또 양심이라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전부 소외되거나 배척되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만이 출세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한국사회에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2

부정선거의 음모와 진행

4.19혁명의 직접적 원인



매표공작의 증거들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승만이 종신집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자유당 정권은 1960년 실시 예정인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러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 아래 선거 1년 전부터 치밀하게 부정선거의 흥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1956년의 대통령 선거와 1958년의 민의원 선거에서 민심이 이미 자유당을 떠나고 있으며, 자유당 정권의 제2인자인 이기붕의 인기가 형편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자유당 정권으로 하여금 부정선거를 획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이유였다.

더욱이 이승만은 이미 83세(1959년 현재)의 고령이므로 임기 도중에 사망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대통령의 유고(有故) 때 승계권(承繼權)이 있는 부통령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붕을 당선시키는 것이 자유당 정권에게는 절박한 지상과제였던 것이다.

자유당 정권은 1959년 3월, 경찰과 지방행정을 지휘하는 내무장관에 최인규를 임명하였다. 최인규는 1954년 민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를 지낸 신익희와 맞섰던 42세의 당돌하고 야심만만한, 이승만에게는 더없는 충복이었다.

최인규는 장관 취임사를 통해 “모든 공무원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기필코 자유당 입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공언하였다. 이어 그는 지방관서를 순시하면서 “공무원이 집무시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

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역설하였다.

최인규는 먼저 전국의 경찰 인사를 단행, 서울시 경찰국장 이강학을 치안국장으로 승진 발령하였고 일선 경찰서장들을 연고지 중심으로 재배치하였다. 오직 충성도만이 경찰 인사의 기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시·읍·면·동 단위로 ‘공무원친목회’를 조직케 하고 관할경찰서 사찰계 형사와 시·읍·면·동장의 감독 아래 공무원들이 매주 1회씩 회합하여 득표공작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자유당 정권은 이처럼 전국 공무원을 한데 묶어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준비하는 한편 야당에 대한 분열책동과 일반 유권자의 포섭공작도 활발하게 진행시켰다. 자유당 정권의 유권자 포섭공작은 공무원 친목회가 중심이 되어 주로 경찰에서 담당하였다. 포섭공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관공서와 관련된 사업가, 인·허가(認許可)대상자, 행정법규 단속 대상자를 이권과 관련시켜 포섭할 것.
2. 구 진보당과 족청(族靑)계* 인사, 언론인, 요시찰자(要視察者) 및 월북자 가족, 무당, 점술가, 계주(契主) 및 투·개표구 선거위원 등을 위협, 회유할 것.

* 족청: 독립운동가 이범석이 해방 후 1946년에 만든 청년조직 대한민족청년단을 족청이라 불렀고 여기 출신들을 족청계라고 했는데, 1948년에는 무려 120만의 단원을 거느린 무시못할 정치세력으로 성장해 나중에 이승만의 탄압을 받았다.

3. 명예심이 강한 자에게는 다음번의 지방행정 기관장이나 지방의 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에 추천한다는 암시를 줄 것.

4. 정계진출의 야심이 있는 자는 자유당이나 기간(基幹)단체의 중요 부서에 임시 임명하거나 임명을 암시할 것.

5. 야당 극렬분자에게는 공공연히 접근하여 술을 사주거나 자유당 과 내통한 양 흑색선전을 해서 야당 진영을 교란시킬 것.

자유당 정권은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은 전국 규모의 부정선거 운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유당 중앙당으로 하여금 거액의 선거자금을 준비케 하였다. 이러한 부정선거 준비와 함께 자유당은 1959년 6월 29일의 전당대회를 통하여 이승만과 이기붕을 제4대 정부통령 후보로 일찌감치 선출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1959년 11월 26일에야 가까스로 정부통령 지명대회를 가질 수 있었다. 구파의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 신파의 장면이 부통령 후보 겸 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60년 1월 29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은 신병이 악화되어 치료차 미국으로 떠나면서 향간에 떠돌던 조기 선거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2월 3일, “농번기를 피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워 3월 15일을 선거날짜로 공고하였다.

매우 공교롭게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은 미국의 윌터리드 육군병원에서 2월 15일 급서하였다. 조병옥의 급서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의 부전승(不戰勝)이 확정되었지만, 부통령 선

거는 4년 전의 악몽이 재연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자유당 정부는 예정대로 부정선거 계획을 밀고 나갔다. 1960년 2월 경 치안국장 이강학은 치안국의 과장급 등 66명으로 선거독찰반을 편성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준비를 독려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독찰반을 감시하는 비밀조직을 만들어 2중 3중으로 물샷틈없는 부정선거 준비를 시켰다.

민주당이 1960년 3월 3일 폭로한, 내무부가 전국의 각급 기관장에게 시달한 자유당의 부정선거방법은 이런 것이었다.

1. 4할 사전투표 : 선거 당일의 자연 기권표와 선거인 명부에 허위 기재한 유령 유권자표,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기권표 등을 그 지역 유권자의 4할 정도씩 만들어 투표 시작 전에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미리 넣도록 할 것.

2.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미리 공작한 유권자로 하여금 3인조 또는 5인조의 팀을 편성시켜 그 조장이 조원의 기표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각 조원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자유당 측 선거위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3. 완장부대 활용 : 자유당 측 유권자에게 ‘자유당’이라는 완장을 착용시켜 투표소 부근 일대의 분위기를 자유당 일색으로 만들어 야당 성향의 유권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자유당에게 투표케 할 것.

4. 야당 참관인 축출 :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하여 투표 참관을 포

기시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적절한 구실을 만들어 축출할 것.

이같이 부정선거의 골격을 마련한 자유당 정부는 그 실천의 구체안으로 ①선거당일에는 자유당 완장 착용자 상당수를 투표소 1백 미터 밖에 배치, ②투표함 수송 도중 투표함 교체, ③개표시에 자유당 표를 야당 표와 바꿔칠 것, ④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을 85% 이상으로 할 것 등 세부계획도 마련, 시달하였다.

야당의 선거유세는 곳곳에서 방해를 받았고 테러가 잇달았다. 선거 막바지에는 야당계 인사가 2명이나 살해되기까지 했다. 극도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3.15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3.15선거는 선거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국민주권을 우롱한 관권 선거였다. 앞서 말했던 자유당의 부정선거 계획은 그 모두가 사실로 나타났다. 4할 사전투표가 사실임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고, 투표소마다 자유당 완장부대가 조성하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3인조 또는 5인조의 공개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야당 측 참관인 대부분이 축출된 가운데 투표라는 요식행위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개표가 진행되면서는 웃지못할 감포 소동도 벌어졌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터무니 없는 득표차로 개표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대구 지역의 한 개표구에서는 이기붕 5천 표, 장면 32표

라는 중간 개표 결과가 나왔다. 이대로 개표를 진행시켰다가는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9%에 육박할 지경이었다.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자유당 중앙당 간부와 관계장관들은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이승만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은 80% 내외로 하고, 이기붕 부통령 후보의 득표율은 70% 내외로 조정하여 발표하라”고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하였다. 최종집계는 과연 그렇게 발표되었다. 3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득표도 자유당 정부의 마음대로, 개표도 그들의 마음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영구집권 기도가 성공했다고 자유당 정권이 기뻐하고 있을 때, 4월혁명의 불길은 이미 타고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불길은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다가 점점 거세게 타고르고 있었다.

3

들불처럼 번져가는 항의
2.28에서 3.15까지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성난 파도(마산의 고교생들)

마침내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 1960년 2월 28일,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한 대구시내 고교생들의 시위가 그 첫 테이프를 끊었다. 그러나 2.28 대구시위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유당 정권 그 자체였다. 자유당 경북도당은 2월 10일, 대구시내 각 기관장과 각급 학교장을 소집하여 2월 27일(토요일) 오후 1시에 있을 예정인 자유당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는 가구당 1명씩 동원하고, 다수가 유세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낮 12시까지 업무와 수업을 모두 끝내라, 민주당 유세날인 28일(일요일)에는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유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동회와 직장 단위로 각종 행사를 계속하라, 특히 고교생들은 정치에 민감하므로 일제히 등교시켜 유세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시달하였다.

자유당의 이같은 요구에 따라 일요일인 2월 28일, 대구시내 각급 학교는 각기 급조된 명목에 따라 등교 지시가 내려졌다. 경북고는 학기말 시험, 대구고는 토끼사냥, 경북사대부고는 임시수업, 대구상고와 대구여고는 졸업생 송별회를 한다는 것이 일요일 등교의 이유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요등교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까닭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부당한 등교 지시에 그대로 따를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가 학생들 사이에 이십전심으로 형성되었다. 일요등교 지시가 처음 내려진 2월 25일 밤부터 경북고, 대구고, 경북사대부고의 학도호국단 간부 학생들은 회합을 갖고 2월 28일 일요등교에 항의하는 시위를하기로 결의하였다.

2월 28일 낮 12시 50분, 일요일에 등교했던 경북고등학교 학생 8백여 명은 교실을 박차고 나와, 교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미리 준비한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시위에 돌입하였다.

인류 역사 이래 이런 강압적이고 횡포한 처사가 있었던가. 근세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느 역사책 속에 끼어 있었던가... 우리는 배움에 불타는 신성한 각오와 장차 동아(東亞)를 짊어지고 나갈 꾀꿇한 역군이요 사회악에 물들지 않은 백합같이 순결한 청춘이요 학도이다. 우리 백만 학도는 지금 이 시간에도 타 고르의 시를 잊지 않고 있다. '그 촛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이들은 "촛불을 밝혀라! 동방의 별들아!", "학원의 자유를 달라!", "학생들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대구시내 중심가로 내달렸다. 반월당과 중앙청을 거쳐서 단숨에 도청 앞 광장에 다다른 이들은 거기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민주주의를 살리고, 학원에 미치는 정치권력을 배제하라!"고 목이 터지게 외쳤다. 마음 속에서 솟구치는 울분을 토해 낸 것이다.

경북고 학생들이 시위에 나올 무렵 대구고등학교에서는 토끼사냥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있었다. 이때 학생 하나가 마이크를

뉘아채고는 서둘러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대구고교생들은 모두 죽었느냐!” 학생들은 “와, 와” 하는 함성으로 화답하면서 시위에 돌입했다. 먼저 도착한 경북고 학생과 뒤늦게 합류한 이들은 연도의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로 격려를 받으며 경북도청으로, 자유당 도당 당사로, 도지사 관사 앞으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북여고와 경북사대부고 학생 1백 50여 명도 시위행렬에 가담하였다. 이들의 시위는 오후 7시 40분 경에 진압되었다. 경찰은 시위에 참가한 학생 2백 50여 명을 연행하였으나, 민심이 자극될 것을 우려한 중앙의 지시에 따라 이날 밤 안으로 모두 석방조치하였다. 그러나 주도자들에 대해서는 미행을 붙이고 교사들로 하여금 매일 가정방문을 하게 하는 등 감시의 손길을 늦추지 않았다.

2월 28일의 대구 학생시위는 규모의 크기보다는 역사적인 의의가 큰 사건이었다. 우선 그것은 이제까지와 같이 동원되는 강제시위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조직한 자발적인 시위였고,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정의감의 발로였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 잠자던 학생들의 자유혼을 흔들어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4.19혁명의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외치기 시작한 의거였던 것이다. 이러한 대구고교생들의 외침은 전국적으로 메아리쳐 가기 시작했다.

3월 2일에는 전주 민주당 강연회장에서 한 고교생이 학교에서

유세장에 못가게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민주주의 만세’라는 혈서를 썼다. 4일에는 광주 공설운동장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유세강연 직후 대학생 10여명이 혈서를 썼다.

5일에는 드디어 서울에서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이날은 마침 서울운동장에서 민주당 선거연설회가 있었다. 오후 4시 45분 쯤 연설회가 끝나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장면 부통령의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장면 부통령의 차가 빠져나간 뒤에도 이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저절로 평화적인 시위로 발전한 것이다. “부정선거 배격하자”, “썩은 정치 갈아보자”, “학생들은 총 쏘기하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가슴 속에 쌓여 있었던 분노가 봄비 속에서 계속 터져 나왔다. 이날 경찰의 진압작전은 대구에서보다는 훨씬 강경했고, 시위가 끝난 뒤에도 삼엄한 경계를 폈다. 서울 경찰은 비상소집령을 내렸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4명의 민주당원과 20여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었다가 그 중 6~7명은 정식으로 취조를 받고서야 풀려났다. 이날 부산에서도 몇몇 학교의 학생대표 16명이 시위를 모의하다가 적발되었고, 부산 영도의 한 인쇄소에서는 시위에 사용할 호소문을 인쇄하다가 경찰에 압수당했다.

8일에는 대전에서도 대구에서와 비슷한 시위가 발생했다. 대전 지역 학생들도 이미 2.28 대구 학생시위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서울신문 강제구독 등 자유당 정권의 횡포에 불만이 팽배해 있었던 터였다. 여기에 7일, 대전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음날 있을 민주당 선거유세에 절대 참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간부 학생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시위를 벌이자고 합의하고는 이내 준비에 착수했다. 결의문의 대강은 이렇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 대전고 건우는 최근의 도당국과 학교 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깨닫고 조속히 학원의 자유보장과 강력한 시정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 내용으로 학원의 정치도구화 배격, 서울신문 강제구독 배격 등 7개항을 들면서 “우리의 거사는 오로지 정의감과 자발적 의사에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동맹휴학도 불사한다”고 하였다 학교당국의 저지로 한때 시위가 좌절되는 듯 했으나 8일 오후 4시, 1천여 명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민주당 유세장인 공설운동장으로 달려갔다. 그곳엔 이미 무장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경찰 곤봉에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대치하던 학생들은 도심으로 진출, 경찰의 제지를 받으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하면서 시위를 계속하였다.

10일에는 대전에서 대전상고 3백여 명이, 수원에서 수원농고 3백여 명이, 충주에서 충주고 1, 2학년 3백여 명이 시위를 벌였고, 12일에는 부산 해동고 2학년 1백 50여 명이 토요일의 이른 학교 시간을 이용해 시위에 돌입하자 동래고와 혜화여고 학생들도 시위에 동참하였다. 이날 청주에서도 청주고 학생 1백여 명이 들고

일어났다. 13일에는 서울에서 다시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경기도 오산의 시골장터에서도 오산고 학생 1백여 명의 시위가 벌어졌다.

14일에는 경상북도 문경에서 문경고등학교 학생들이 기미년 3.1운동을 본받아 33인 연명으로 시위를 계획하다가 사전에 발각, 전원이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3.15선거일을 앞 둔 14일 밤에는 전국에 걸쳐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시위대의 물결이 곳곳에서 파도쳤다. 서울에서는 교사들과 경찰의 검문을 뚫고 학생들은 50명, 혹은 1백 명씩 떼를 지어 시내의 중요한 몇 개 지점을 돌며 전단을 뿌리고 구호를 외쳤다. 종로거리에서는 대동상고 학생 3백여 명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를 연필로 쓴 전단을 뿌리며 시위를 벌였다. 균명고, 강문고, 중동고, 배재고, 수송고, 선린상고, 경기고, 보인고, 조양고, 중앙고, 대신고, 경동고 등에서 학생들이 다투어 나왔다. 누가 주동하지도 않았고, 누가 오라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모였다. 이 날의 학생 시위와 관련, 서울시 경찰국은 각 고등학교 학생 1백 80명을 연행하였다.

서울에서 학생들이 야간시위를 벌인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부산, 인천, 원주, 포항에서도 시위의 불길이 타올랐다. 부산에서는 오후 6시부터 부산진구 구름다리에서 시위가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동래고, 부산상고, 향도고, 북부산고, 영남상고, 해동고, 테레사여고의 남녀 학생들이 혹은 팔짱을 끼고, 혹은 어깨동

무를 한 채 지칠 줄 모르게 시위와 흠어짐을 반복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우리 선배는 썩었다!”는 구호가 나왔다. 침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힐난하는 목소리였다. 인천에서도 이날 밤 9시 30분, 인천시내 성산교회 앞에서 송도고 학생 50여 명이 끝내 시위를 감행, 그날 낮 정오와 7시에 이루지 못했던 시위를 관철시켰다. 그러자 학생과 시민 2백여 명이 금방 모여들었다. 원주에서도 오후 4시경, 원주농고 1, 2학년 1백여 명의 학생들이 원성군청 앞에서 시작하여 군인극장을 거쳐 중앙시장 안에 있는 백화점까지 전단을 뿌리며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때 이들이 외친 구호는 “수호하자 인권”, “취소하자 3인조”, “실시하자 공명선거” 등이었다. 같은 날 오후 6시 경, 포항에서도 포항고 학생 약 2백여 명이 수도산에 집결하여 대오를 편성, 덕산동을 거쳐 중앙로터리에 이르기까지 “학원의 자유를 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2월 28일부터 시작된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이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다. 2.28 대구시위는 명목상 일요등교에 대한 불만에서 촉발되었지만, 학생시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요구조건이 학원의 자유를 뛰어넘어 공명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주권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학원의 자유는 학원에 국한된 것이지만 공명선거는 국민적 요구였던 것이다. 학생들이 국민의 요구를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러기에 시민의 호응과 격려가 뒤따랐던 것이다.

경찰의 학생시위에 대한 탄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강도가

높아갔다. 진압과정도 날로 난폭해지기 시작했고 연행과 심문 과정에서도 보복이 더욱 심해져 갔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충정과 그 순수성을 왜곡하여 민주당이 조종하여 시위가 일어난 것으로 몰고 갔다.

3월 13일, 서울 명동의 시공관에서 뿌려진 전단에는 ‘백 가지 공약보다 한 가지 공명선거’ 라고 쓰여 있었다. 이때까지는 공명선거가 최대의 요구였다. 자유당 정권이 학생들의 피맺힌 절규를 받아들여 뒤늦게라도 공명선거를 실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3.15부정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몰락으로 가는 묘혈이었다.

4

선거는 무효다 3.15부정선거와 마산



선두의 여학생(김인숙)-정 · 부통령선거 다시하라!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의 날이 왔다. 이 날의 부정선거는 자유당과 경찰의 각본대로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었다.

남해안의 항구도시 마산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투표가 시작되는 시각인 오전 7시, 민주당 마산시당 간부들은 투표소 입구를 막고 서서 완강히 저지하는 경찰의 제지를 뚫고 투표소 안으로 뛰어 들어가 '4할 사전투표'가 이미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에 의하여 투표소에서 내쫓긴 이들이 마산시 오동동시당 당사로 돌아와 대책을 협의하고 있을 때, 투표통지표를 받지 못한 유권자 수백 명이 당사 앞 너비 10미터의 도로에 몰려와 "내 표를 찾아달라"면서 아우성을 쳤다.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마산시당은 선거포기를 결정하고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오후 1시 30분에는 민주당 경남도당이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오후 4시 30분에는 민주당 중앙당이 3.15선거가 불법무효임을 전면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서울시 중구 순화동 부통령 공관에서 당 최고위원 및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3.15선거는 불법 무효"라는 선언과 함께 정치적, 법적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선언과 결의내용은 각 지구당에 전문(電文)으로 전달되었다.

민주당 마산시당의 선거포기, 무효선언은 경남도당의 그것보다 3시간, 중앙당보다 6시간 앞선 것으로, 마산에서 이처럼 선거포기와 무효선언이 가장 빨리 나온 데는 당시 마산의 특수사

정이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인구 15만의 마산은 일찍부터 민도(民度)가 높아 역대 선거에서 늘 야당이 승리하였다. 관권이 기승을 부렸던 1958년의 민의원 선거에서도 야당 후보 허윤수를 무난히 당선시켰다. 이 때 마산에 인접한 창원 출신으로 자유당의 실력자요 강경파였던 이용범 의원은 1960년 2월, 허윤수의 원을 포섭 변질케 하여 자유당에 입당시키는데 성공했다. 허윤수의 배신에 크게 격분한 마산시당의 민주당원들은 3월의 정부통령 선거에서만은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절치부심하고 있었다. 이용범은 권력을 휘둘러 경찰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었다. 그 결과 마산의 선거운동은 여타의 지역과는 달리 유별나게 살벌한 가운데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마산시당 간부들은 그때 저질러지고 있던 부정선거의 사례를 당사 앞에 모인 군중들에게 방송으로 폭로하였다. 마산의 시위는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되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총무인 정남규 등 도의원과 마산 시의원들이 앞장서고 학생과 시민 1천여 명이 뒤따른 시위행렬은 한동안 별다른 제지없이 변화가를 누볐다. 시간이 갈수록 시위대의 뒤를 따르는 시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오후 4시 20분, 정남규 등 민주당 간부 6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 동안 5천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경찰의 제지가 강화되자 "7시 개표시각에 시청 개표장 앞에서 모이자"면서 오후 6

시경 자진 해산하였다. 오후 7시 30분 경, 어림잡아 1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시청 부근에 모여들었다. 이 때 경찰은 사태의 긴박성을 예측했음인지 전원 실탄을 장전한 소총으로 무장하고 시청 입구는 물론 파출소마다 엄중한 경계를 펴고 있었다. 그러나 군중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고, 또 자연스럽게 시위대열을 이루어 갔다. 이들은 오후 8시 경, 시청에서 4백 미터 떨어진 자산동 무학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청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제 구호는 ‘부정선거 다시하라’로 바뀐 것이다. 이 무렵 남성동파출소 앞 길에서도 도로를 가득 메운 군중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시위대열이 시청 쪽으로 다가오자, 시청 정문 앞에 대기 중이던 소방차 1대가 호스로 물을 뿜으며 시위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시위대에서 돌팔매가 날아오자 소방차 운전사는 뛰어내려 달아나고, 소방차만 달려오다가 무학초등학교 앞 전주를 들이받았다.

마산시내 일원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을 떠받치고 있던 이 전주가 차체의 충격에 쓰러지면서 고압선이 합선되었는지 폭음과 함께 시내 일원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바뀌었다. 정전과 거의 동시에 강력한 성능의 최루탄이 발사되고 이와 함께 쿵을 부는 듯한 요란한 총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경찰의 총구가 시위대를 향해 불을 뿜은 것이다. 마산중학교 3년생 김영호 군이 최초의 희생자였다. 김주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 열 일곱의

짧은 생애를 마감한 것도 여기 무학초등학교 부근 자산동 길목 관에서였다. 4.19혁명의 전 과정을 통하여 1백 90여 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가고 6천 4백여 명의 중경상자를 낸 피의 제전은 이렇게 마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앞에 섰던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쓰러졌고, 뒤에 섰던 시민들은 학생들이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실탄사격이 있었음을 알았다. 시민들은 그 자리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놀랄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분노의 열기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시위군중들의 일부는 북마산 방면으로, 일부는 시청 방면으로 나아갔다. 북마산 방면으로 향했던 시위대가 북마산파출소 옆 다리에 도착하였을 때, 큰 길로 오던 군중과 시냇가 양쪽으로 올라오던 군중들이 다리목에서 합세, 파출소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이때 또 총탄이 퍼부어졌다. 다시 수많은 학생들이 선혈을 흘리며 쓰러져 갔다. 그러나 시위대열은 더 이상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돌팔매로 대항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옆 사람이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여학생들은 부지런히 교복 스커트에 돌을 주워담아 남학생들에게 날랐다. 그러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남학생들도 돌을 던지면서 통곡하고 있었다. 얼굴이 모두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밤 9시 30분, 북마산파출소 안에서 불길의 솟아올랐다. 정전이라 파출소 안에는 석유램프를 켜 놓았는데, 날아온 돌에 맞아

램프가 넘어지면서 불이 난 것이다. 북마산파출소는 이내 전소되었다. 극도로 흥분한 시위대는 여러 갈래로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원한의 표적을 찾아내 분노를 터뜨렸다. 마산출신 민의원 허윤수의 집은 기둥만 남은 채 파괴되었다. 자유당 당사, 서울신문 마산총국, 국민회 마산지부, 오동동파출소, 남성동파출소 등도 크게 부서졌다.

경찰은 경찰 지프차와 소방차를 총동원하여 헤드라이트로 밤길을 밝히면서 시위대를 뒤쫓아가 총격을 가하였다. 쫓기는 시위대는 시간이 갈수록 기세가 약해졌다. 밤 10시경에는 2백여 명이 마산상고 뒤 용마산에 집결했다가 포위망이 좁혀지자 산등성이에 있는 성호동 교회에 불을 지르고 가까스로 탈출하였다. 경찰은 시위대가 흩어진 뒤에도 골목마다 손전등을 비추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시위대원들을 검거하였다. 이날의 시위는 9명의 사망자와 80여 명의 중상자를 내고 밤 11시 30분 경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날 시위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모두 2백 53명으로 이들은 예외없이 경찰로부터 무자비한 보복성 폭행을 당하였다.

경찰은 이날의 정전사태가 시위대가 계획적으로 두 줄의 전선에 철선을 연결시켜 일어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또 북마산파출소의 불도 시위대가 화물차에서 뽑은 가솔린으로 화염병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방화를 저질러서 일어났다고 발표하였다. 심지어 경찰은 파출소에서 총기 2정을 탈취 당하였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총기를 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기를 탈취 당했다는 것은 북새통에 분실한 총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작이었다.

경찰은 시위가 진압된 뒤, 사건의 중대성과 상부의 문책을 두려워했음인지 이날의 시위를 공산당 지하조직에 의한 좌익폭동으로 몰고 갔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병원 시체실에 옮겨진 시위 희생자의 호주머니에 붙은 뼈라를 집어넣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이날 낮 시위 때 검거한 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원인 정남규가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이번 소요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둘러 씌웠다.

경찰의 각본은 “남로당 비밀 당원이면서 신분을 위장하여 도의원이 된 정남규는 각지에서 학생 시위가 빈발하자 선거날인 3월 15일을 기해 민중봉기를 획책하였다. 15일 밤의 정전 사고도 미리 계획된 것이었으며, 정남규의 지휘를 받은 폭도들이 북마산파출소에 방화하는 한편 다른 지방과의 연락을 위해 산에서는 봉화를 올렸다”고 꾸며져 있었다. 이같이 터무니없는 내용의 사건조작을 위해 경찰은 정씨와 또 정현팔 군 부자를 비롯하여 각본에 필요한 ‘관련자’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각종 ‘증거물’을 만들었다.

현지 경찰의 보고를 토대로 3월 16일, 국무회의는 마산 시위 관련자를 형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은 16일, 마산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것

은 지금까지 학생시위를 관대하게 조치함으로써 일어난 것 아닌가. 철저히 배후관계를 규명하여 의법 처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날 내무장관은 “마산사건은 폭동, 방화, 소요사건이며, 공산당이 개입되었다면 내란에 속한다”고 말했다. 17일, 치안국장은 “마산소요 사건은 공산당 수법에 의해 이루어진 증거가 있어 배후에 공산당 개재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이같은 정부 측 발표에 따라 꼼짝없이 공산당으로 몰리게 된 시위관련자들은 가족 중에 부상자가 있어도 무서워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집에 숨겨둔 채 몰래 치료하는 등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6일,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 박사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3.15선거의 무효를 다시 선언하면서 마산사건에 대해 “7명의 사상자와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선거 사상 참담한 이 사태를 국민과 더불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 차원에서 이 사건을 조사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민주당의 조사활동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진상조사, 그리고 16일부터 현지를 찾아 살살이 진상을 파헤친 국내 언론의 사실보도로 좌익폭동의 누명은 오래지 않아 벗겨지게 되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구영)는 ‘마산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3월 18일 조사단을 마산 현지에 급파하여 진상을 조사하였다. 조사단은 3월 25일에 마산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

에 공표하였다. 여기에서 조사단은 마산 시민의 시위는 정부 측의 발표와는 달리 오직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난 것임을 밝히고, 경찰의 무차별한 발포로 인명을 살상한 것은 명백한 과잉진압이므로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살인죄로 엄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몇몇 용기있는 검사들의 공정한 수사도 마산시위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몫을 하였다.

결국 정부는 마산 사태의 책임을 물어 3월 23일 내무장관 최인규의 사표를 수리하고 법무장관 홍진기를 후임 내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 25일에는 시위 관련 구속자 중 정남규 등 6명을 제외한 전원을 석방하고 박종표 경위 등 경찰관 5명을 발포혐의로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28일에는 치안국장 이강학이 해임되고, 3월 30일에는 대검찰청 소진섭 차장검사가 “마산 사건에 공산당의 배후조종 증거는 없다”고 언명, 이로써 마산시위의 공산당 조종혐의는 일단락되었다.

전국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는 비단 마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광주에서는 각종 선거부정 사실을 폭로한 후 참관인을 철수시킨 민주당 광주시 지구당이 15일 오후 12시 50분 ‘곡(哭) 민주주의 장송’이라고 쓴 만장을 당사에 내걸었다. 그리고는 50여 명의 당원들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외침과 함께 통곡하면서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잠시 후 출동한 경찰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통곡을 멈추지 않았고, 소방차의 물세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민

주주의는 죽었다'는 구호를 외쳤다. 같은 날, 오후 1시 진주에서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민주당원 10여 명의 침묵시위가 있었다. 경찰은 오후 2시 경 민주당 진주시 지구당 조직부장을 비롯한 10명 모두를 정부통령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3.15부정선거는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세계에 부각시켰다. AP 통신이 「3.15선거와 한국 민주주의」라는 기사에서 “고목에 꽃이 핀 줄 알았더니 사실은 썩어 문드러진 곰팡이에 지나지 않았다”고 전제한 후 “한국의 남단 마산항에서 벌어진 경찰의 행위는 정복만을 노리는 외국 침략자들이 사용하는 탄압방법과 유사한 것이었다”고 보도한 것을 비롯,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영국의 더 타임스, 프랑스의 르몽드, 미국의 주간지 타임과 뉴스위크 등이 상당한 지면을 통하여 3.15부정선거를 야유하였다. 3월 17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한국에서 선거기간 중 폭력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 같은 폭력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허더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양유찬 주미대사를 불러 “이번 한국 선거에서 나타났던 폭동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항의의 뜻이 담긴 외교각서를 전달하였다.

국내에서도 항의는 계속되었다. 3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안국동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는 고교생이 주축이 된 5백여 명이 자연발생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때 이들이 외친 시위

구호는 “독재정치 배격한다”, “마산 동포 구출하자”는 것이었다. 다음날인 17일에는 성남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4백여 명이 영등포에서 시위에 나섰다. 오후 1시, 이들은 영등포구청 앞 광장과 서울극장 앞에 각각 2백여 명씩 집합, 시위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영등포 중앙시장 앞에서 합쳤다가 다시 수원 가도와 인천 가도로 분리 행진하였다. “정부는 마산 학생 7명을 죽인 책임을 지라”, “왜놈의 총칼로 선열들이 쓰러진 자리에 우리 학생들은 우리 경찰의 손에 죽었다” 등 학생들은 시위에 나서는 이유를 구호로 집약하여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급거 출동한 정·사복 경찰관들과 경찰차, 소방차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힘차게 행진을 밀고 나갔다. 학생들의 너무도 당당한 기세에 눌린 경찰은 마침내 공포까지 발사하였다. 학생들은 한때 멈칫하였지만, 1백여 명의 학생들은 연행해 가라고 경찰에 몸을 내맡기며 질서정연하게 경찰서를 향해 걸었다. 주도자로 몰린 3명의 학생은 즉결심판에서 각각 3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

지방의 소도시에서도 학생들의 시위행렬이 줄을 이었다. 광주 의 전남여고와 전주의 전주여고, 전주여상고에서도 시위 기도가 있었고, 진해에서는 진해여고 학생들이 16일에 시위를 감행한 데 이어 17일에는 진해고 학생 약 2백여 명이 학교 측의 만류를 뿌리치고 역전 광장에 모여 ‘협잡선거 물리치자’는 표어를 가슴에 달고 시위하였다. 이들은 두 조로 나뉘어 진해극장

쪽과 해군사관학교 쪽으로 시가행진을 해 나갔다. 행진 도중 경찰이 발사하는 공포로 대열이 해산되었는데 해산에 불응한 7명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 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당국은 학생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교중지령을 내렸다. 마산시내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7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오후 5시 이후에 거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시달하였다.

국회의원들도 시위에 나섰다. 3월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자 민주당의 곽상훈 의원이 '3.15선거 무효선언'을 낭독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3.15선거는 무효다", "이승만 정부는 물러가라",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와 시위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태평로 의사당 앞에서 '민주주의 만세'를 외친 다음 대열을 이루어 아카데미극장 앞을 지나 서린동 의원부 연락처에 도착, 10시 30분 경 해산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후보와 짝이 되어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로 3.15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기붕은 19일 오후 기자들과의 회견 자리에서 마산에서의 발포사건을 가리켜 "충은 சொ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여 국민을 자극하였다.

부산에서도 예정보다 빨리 중고등학교의 봄방학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당초 27일부터로 예정되었던 봄방학을 24일로 당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3월 24일 오전 8시 40분, 약 9백 명의 부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동포여, 잠을 깨라! 일어나라! 짓밟힌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나라! 내일의 조국 운명을 위해 일어나라!"는 구호를 담은 「동포에게 호소하는 글」을 낭독하고 초량동 교사를 뛰쳐나왔다. "경찰은 마산 학생 사살 사건에 책임을 지라!"는 구호와 함께 사이사이에 "비겁한 자여, 너의 이름은 방관자니라", "평화적인 시위는 우리의 권리다", "협잡선거 물리치고 공명선거 다시 하자"고 외치면서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였다. 9시 40분 범천동 로타리에서 부산공고 학생들이 합류, 기세가 등등해진 시위대는 범일동파출소 앞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시위대가 경찰에 의해 해산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연행자가 늘었다. 시위는 산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날 경찰의 폭력저지는 그 어느 때보다 거칠고 사나웠다. 휘두르던 경찰근봉이 두 동강이 나기도 했다.

이튿날인 25일, 학생들의 시위는 폭우가 쏟아지는 부산거리를 휩쓸었다. 부산고에 이어 동성중·고등학교에서도 오전 9시 20분, 3백여 학생들이 폭우를 뚫고 일어섰다. 이들은 어제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어제 달렸던 거리를 행진하면서 '전 부산학생'의 이름으로 된 수백 장의 전단을 뿌렸다. 이육고 경남공고 학생들이 합류하고 데레사여고생들도 뒤따랐다. 이렇게 수백 명

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범일동 구름다리를 지나 시내 중심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정사복 경찰관을 배치해 방어선을 펴고 있었고 비마저 더욱 거세졌다. 소강상태에 빠졌던 시위는 밤 8시 30분, 시내 전포동에서 다시 불붙었다. 남녀 1백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의 깃발을 올린 것이다. 경남고생 80여 명과 해화여고생 20여 명이 합류하여 전포동 제일제당 앞에서 출발, 범내골 로타리를 돌아 시내로 몰려나갔다. 곤봉을 휘두르는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며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많은 부상자를 내고 시위대는 해산당했다. 비내리는 밤거리는 또한 학생들의 울음거리였다.

3.15부정선거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항의가 거리를 뒤덮자 어른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짓눌렸던 민족정기와 정의감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4월 14일에는 전주에서 전북대학생 3백여 명이 대학생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시위에 나섰다. 4월 6일 10시 15분에는 서울에서 민주당, 민권수호국민총연맹, 공명선거추진위원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시위가 '3.15선거는 전적으로 불법이며 무효'라는 선언식을 시작으로 "3.15선거는 불법이다. 무효다!", "이승만 정부는 물러가라",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 "살인 선거 책임자들을 처단하라", "마산사건 원흉을 잡아내라", "평화적 데모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는 구호와 함께 벌어졌다. 이날 시위로 서울 거리는 인산인해가 되었다. 박수갈채를 보내는 수많은 시민들과 대담하게 시위행렬에 뛰어드는

청년들로 인해 서울 거리는 온통 시위와 함성의 도가니가 되었다.

시위도중 국회의사당과 시청 앞에서는 '3.15선거의 불법 무효선언' 이 되풀이 되고 만세가 울려 퍼지며 간간이 애국가도 불리워졌다. 시위대가 종로를 지날 때는 약 4천여 명의 인파가 차도를 뒤덮었다. 이 시위는 12시 40분에 해산되었지만, 산발적인 시위는 계속되었다. 서울에서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소식이 전해진 부산에서도 4월 9일, 민주당 경남도당 당원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렇게 시위는 간헐적으로,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5

아아! 김주열

김주열의 죽음과 제2차 마산의거



인양된 김주열군 시체-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채 숨진 처참한 모습

4월 11일 오전 11시 20분, 마산시 신포동 중앙부두 앞에서 2백미터쯤 떨어진 바다의 수면 위로 시체 한 구가 떠올랐다. 오른쪽 눈은 부릅뜬 채 왼쪽 눈에는 포탄같이 생긴 쇠붙이가 박힌, 참혹한 몰골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둣가에서 거룻배를 타고 바다낚시를 하던 어부에게 의뢰, 시체가 발견된 지 거의 1시간 만에 시체를 인양하여 부두에 내려놓게 하였다. 시체 발견 소문을 듣고 그 사이에 수많은 시민들이 부둣가로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인양된 시체를 보자마자 “김주열이다!” 하고 소리질렀다.

시민들이 시체의 신원을 김주열이라고 금방 알아본 데는 김 군의 어머니 권찬주 여사의 애끓는 모성애가 뒷받침되어 있었다. 고향인 전북 남원에서 중학교를 마친 김 군은 마산상고에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 마산고 재학생인 친형과 함께 친척집에 머물고 있던 중 3월 15일 야간시위에 참가했다가 실종되었다. 마산 시위와 그 이후의 혼란이 차차 가라앉고 실종 신고자들의 소재가 모두 확인되었을 때도 김 군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아들의 실종소식을 듣고 남원에서 달려온 어머니는 낮선 마산 거리를 헤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 하였다. 아들을 찾는데 혈안이 된 어머니는 서울에서 내려 온 조사단에게도 호소하여 경찰이 시체를 시청 뒤 물탱크(철도청의 기관 급수용 저수지)에 버렸다는 풍문에 따라 저수지 인양작업까지 벌였으나 허탕이었다. 김주열 군의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사이에 어느덧 ‘김주열 미스터리’는 마산 시민들의 머릿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시체가 발견되기 3시간 전 남원으로 떠났다. 마산을 떠나면서 어머니는 “아들의 소식을 듣거든 꼭 알려달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마산시민들은 시체가 인양되자마자 그 신원이 김주열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김주열의 시체는 도립병원으로 운반, 안치되었다. 그러자 김주열이 참혹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소문은 삼시간에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경찰이 김주열의 눈에 포탄을 박아 죽였다”는 소문에 분격한 시민들은 다투어 도립병원으로 몰려들었다. 도립병원으로 단숨에 몰려든 시민이 1천여 명을 넘어섰다. 그들은 김주열의 참혹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성난 물결을 이루어 시가지를 누비기 시작하였다.

시위대의 선두에선 “내 자식을 내 놓으라”는 3.15희생자 유가족의 애끓는 통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6시 경 3만여 명으로 늘어난 성난 시위대는 시내 곳곳에서 “살인선거 물리쳐라!”, “시체를 인도하라!”고 외치며 마산경찰서를 비롯, 남성, 북마산, 오동동, 중앙동, 신마산과출소 등에 성난 파도처럼 들이닥쳤다. 일부 시위대는 자유당과 관련있는 인사의 집이나 기관의 사무실을 닥치는 대로 부섴다. 오후 7시경에는 시청에도 난입, 시청 안에 보관 중이던 투표지를 불살라 버리고 기물을 부수고, 서류 몽치를 집어 내던졌다.

처음 시위대의 기세에 눌린 경찰은 밤 9시까지의 마산경찰서를

중심으로 경비만 하면서 시위를 방관하였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았다. 부산도경에서 지원병력이 도착하자 시청과 경찰서로 병력을 집결, 밤 9시 35분부터 발포를 개시하였다. 이때의 발포로 2명의 희생자가 생겨났다. 경찰은 시위에 앞장선 학생간부들을 연행했고, 연행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경찰서로 몰려들자, 처음에는 공포를 50~60발을 쏘았다. 그래도 시위대가 전혀 동요하지 않자 실탄사격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몇 사람이 쓰러지자 시위대속에서 애국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들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 박사가 서거했을 때 불렀던 조가를 불렀다. 여자들은 「유관순 누나」와 「3.1절 노래」를 불렀다. 광복절 노래도 나왔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도 나왔다. 경찰은 시위대의 기세가 꺾이자 밤 10시 20분 발포를 중지하였다. 한 동안 흩어졌던 시위대는 자정 무렵 다시 경찰서 앞에 몰려와 연행학생 석방을 요구하면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12일 새벽 1시 50분, 연행자들을 석방하였다. 시위대는 곧 자진 해산하였다. 김주열의 시체가 발견되었던 4월 11일은 이렇게 지나갔다.

4월 12일, 아침이 밝아오자 마산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웅성거렸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우산을 받쳐 들지 않았다. 오전 10시, 마산공고 학생 5백여 명이 '민주주의 바로잡자'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행렬을 지어 교문을 나섰다. 뒤이어 창신고 3백 명, 마산여고 4백 명, 마산고 5백 명, 마산상고 1천여 명이 각각 시위에 나섰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학교장과 교사들이

시위행렬의 앞뒤를 호위했다. 시민들도 뒤를 따르거나 길가에서 박수를 보냈다. 마산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제지가 있었지만, 경찰서 뒤쪽으로 시위대가 우회하자 충돌은 없었다. 학생 시위대는 마산시내를 관통하여 다시 귀로에 올랐다. 이번에는 경찰서를 정면으로 통과하였다. 이들의 질서있는 시위에 갑자기 시민들로부터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와 함께 수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했다. 이제 시민이 학생시위에 호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시민의 인파에 휩쓸리는 판이었다. 남녀노소 3만의 시민대열이 형성되었다.

시위대는 질서정연하게 행진하여 오후 3시 경 독립병원 시체실 앞에 집결, 태극기와 생화로 덮여 있는 김주열 군의 주검을 향해 묵례하고 해산하였다. 김 군의 시체는 전날 오후부터 민주당원 1백여 명이 계속 지키고 있었다. 민주당원들은 경찰 측이 혹시라도 시체를 딛 곳으로 옮기거나 훼손시킬까 우려하여 밤을 새워 시체실을 지킨 것이다.

학생 시위가 해산되자 경찰은 전날의 시위에 참가한 주동자 색출에 나섰다. 학생들의 질서있는 시위를 지켜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던 시민들은 경찰의 처사에 다시 격분하였다. 삼시간에 1만여 명으로 늘어난 군중은 오후 7시로 앞당겨진 통금 사이렌이 신호라도 되는 양 마산경찰서 앞에 몰려들어 돌을 던졌다. 경찰도 이때는 자제하였다. "돌을 던지면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경찰이 움직이면 군중들의 흥분이 더해진다"면서 온건하게 대응하였다.

선봉에 섰던 시위대가 경찰서 정문 안으로 돌입하자 경찰은 일제히 공포를 발사했다. 시위는 11시 20분까지 계속되었다. 이날 야간시위에는 특히 부녀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고문경관 체포하라!”, “공권력을 발동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처럼 이날의 시위는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었으나 다행히 큰 피해없이 끝났다.

시위는 사흘을 연이어 13일에도 계속되었다.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오전 10시에 해인대학교 학생 2백여 명이 시위에 나섰고, 마산여고, 성지여고, 마산 제일여고생 1천여 명도 뒤따라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어제와는 달리 난폭하게 시위를 진압, 해산시켰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는 억수같은 폭우로 바뀌었고, 마산 시내 요소요소에는 무장경관이 배치되어 시민들의 외출을 통제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가차없이 붙들어 갔다. 이날 밤 더 이상의 시위는 거의 불가능했다.

경찰의 강경선회는 12일에 발표된 내무장관과 법무차관 이름으로 된 담화에도 관련이 있었다. 그 담화는 “그 배후조종에는 적색마수가 개재된 혐의도 있어 수사 중에 있으니 선량한 국민 여러분은 이에 부화뇌동치 말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국법에 의하여 엄중 처단할 것”이라고 하고 있었다. 사흘에 걸쳐 계속되었던 마산시민들의 제2차 시위는 이렇게 해서 일단 끝났다.

그 동안 시위의 소용돌이 속에 미루어오던 김주열 군의 시체 검안은 13일 오후 늦게 실시되었다. 검사가 늦어진 데는 김 군의 눈

에 박힌 포탄이 불발탄이어서 의사들의 힘만으로는 포탄 제거가 위험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마산 인근의 군부대에서 위험물 제거반이 도착, 포탄을 조심스럽게 뽑아냈다. 추출된 포탄은 직경 5cm, 길이 20cm에 탄피가 알루미늄으로 된 미세 고성능 최루탄으로, 꼬리 부분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었으며, 건물 벽을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대(對)무장폭도용 최루탄이었다. 최루탄의 겉면에 직접 군중을 향해서는 쏘지 말라(Don't use on the crowd)는 주의표지까지 적혀 있는 특수 최루탄을 경찰은 비무장 군중에게 직접 발사했던 것이다.

3월 15일 밤, 시위 군중 속에 있던 김주열은 공중에서 ‘부웅’ 하는 소리가 나자 뭔가 하고 쳐다 본 순간 공교롭게도 최루탄이 왼쪽 눈에 박혀 치명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최루탄은 당시 경비주임 박종표가 실탄사격과 함께 발사한 최루탄 10여 발 가운데 하나로, 견고한 건물 벽이나 땅바닥에 닿기 전 부드러운 사람의 몸에 박히는 바람에 불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종표는 3.15시위가 진압된 후, 부하 경찰관들과 함께 무학초등학교 앞길에 쓰러져 있던 사상자들을 운반하다가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의 시체를 발견했다. 박종표는 괴이한 모습의 시체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것이 두려워, 경찰서장의 지프차에 시체를 싣고 부두로 나가 돌을 매달아 바다에 집어던져 버렸던 것이다. 김주열의 시체는 27일 동안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묶여둔 돌이 미끌어져 떨어져 나가면서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이다.

김주열 군의 시체로 비롯된 마산의 제2차 시위는 개각 등으로 시국수습을 꾀하던 자유당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우선 정부는 4월 12일, 국민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각급 학교에 3일간 등교중지령을 내리고, 마산·창원 지역의 통금시간을 오후 7시에서 이튿날 오전 5시로 연장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또다시 공산계열의 책동으로 몰아가려 하였다. 4월 13일 오전 국무회의는 대검찰청 정보담당 오제도 검사와 조인구 치안국장, 하갑청 육군 특무부대장 등 3인으로 ‘대공(對共) 3부 합동수사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하고 내무·법무·국방 등 3부의 수사 전문가를 마산에 상주시켜 “적색분자들의 준동 혐의를 과학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또 이날 오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대통령은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인데, 난동은 결국 공산당에 좋은 기회를 줄 뿐”이라고 말하였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마산에서는 대대적인 검거선봉이 불어 모두 1천여 명이 시위혐의 또는 통금위반으로 검거되었다.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에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해 마산역 화물차 칸에까지 수용하였다. 경찰은 3.15 1차 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거듭 좌익 폭동으로 몰아가려고 했으나 고문은 1차 때보다 덜 심한 편이었다. 2차 시위와 관련하여 4월 14일 20명이 구속되고 15일에 10명, 16일 2명이 추가 구속되어 모두 32명이 구속되었다.

14일 경남 도지사 신도성은 국회 조사단에게 “마산의 2차 시위

는 공산당 수법과 흡사하다”고 증언했고, 15일 치안국장 조인구는 “2차 시위에 공산당이 개입한 모종 중대 정보를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5일 또다시 특별담화를 발표, “해내 외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마산에서 일어난 폭동은 공산당이 들어와 뒤에서 조종한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공산당의 선전에 놀아나는 것을 각오를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마산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인정하기는커녕 굳이 좌익계열의 폭동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였다.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대량 검거와 좌익 폭동으로 몰아가는데 대해 마산의 교육자들은 “학생시위는 김주열 군의 처참한 변사체를 보고 흥분한 학생들이 순수한 인간적인 동정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당국이 이를 파괴시위와 혼동하고 오열(五列)과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학생 시위에 대한 사후처리와 훈도는 학교당국에 일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시위는 계속되었다. 15일 아침 11시 마산상고와 마산고 학생 50여 명이 마산상고 뒤에 있는 용마산과 제비산 마루턱에 집결하여 플래카드를 들고 애국가와 만세를 고창하였다. 전주에서도 오후 5시, 민주당원 1백여 명이 당사앞에서 시청 앞까지 약 5백 미터의 대로를 만세를 외치고 전단을 뿌리면서 행진하였다. 부산에서는 오전 11시 동래고 학생 1천여 명이, 16일에는 청주에서 청주공고생 3백여 명이, 17일에는 진주와 인천에서 민주당원들이, 18일 오전 9시 30분에는 부산에서 동래고생 1천 3백여 명이 거리로 뛰어나왔다.

6

자유, 너 영원한 활화산이여!

4.18 고려대 시위



우리의 주장을! 국회의사당 앞 고대생 선언문 낭독(1960.4.18)

자유 너 영원한 활화산이여!

사악과 불의에 항거하여 압제의 시슬을 뚫고 분노의 불길을 터뜨린

아! 1960년 4월 18일

천지를 뒤흔든 정의의 함성을 새겨

그 날의 분화구 여기에 돌을 세운다

(고려대 4.19 기념탑 비문, 시인 조지훈이 썼다)

4월 1일 신학기*가 시작되어 봄 방학을 마친 각급 학교가 신입생맞이 등으로 부산할 때, 서울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서울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서울 학생들은 비겁하다”는 자성과 불평이 공공연히 터져 나왔다. 마산에서는 두 차례나 대규모 유혈 시위가 일어났고, 부산을 비롯한 지방 도시에서도 연달아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서울에서만 조용하다는데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의아스럽게 생각했고 또 그것을 안타까워 했다. 더욱이 고등학생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에서 대학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더 없이 부끄러운 노릇이었다.

그러나 늦긴 했지만 서울 학생들도 결코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각 대학마다, 고교마다 분노를 감추면서 떨쳐 일어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 분화구를 맨 먼저 터뜨린 것이 고려대학교였다.

고려대 시위계획은 봄 방학 기간인 3월 중순부터 태동하였다.

* 이 당시에는 신학기가 4월에 시작되었다.

방학 중 5개 단과대학 운영위원장들은 졸업생에게 줄 기념품 문제로 자주 어울리면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4월 신학기가 되어 개학했을 때, 방학 중 지방에서 있다가 올라온 학생들로부터 시위를 하자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그러던 4월 11일, 마산에서 다시 대규모 시위가 터지자 이들 간부 학생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신입생 환영회 예정일인 16일(토요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선언문과 격문 등을 비밀리에 준비하였다. 그러나 막상 16일이 되자 검색을 눈치챈 형사들이 학교로 들이닥쳤고, 학교 측은 서둘러 신입생 환영회를 무기 연기시켜 버렸다. 이에 따라 시위계획도 자연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18일(월요일) 아침 간부들은 학교 안으로 숨어 들어가 평소 뜻을 함께하던 대의원들에게 “오늘 낮 12시 50분 점심시간 사이렌을 신호로 학생들을 교정에 있는 인촌(仁村) 동상 앞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예정된 시각, 학생들의 움직임을 알아챈 학교 측은 사이렌을 울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인촌 동상 앞으로!” 라고 외치면서 순식간에 3천여 명이 집결하였다. 신입생 환영회에 쓰려고 준비했던 수건이 급히 나누어지자 학생들은 ‘고대’ 라고 쓴 글씨가 새겨진 그 수건을 머리에 동여맸다. 학교 측의 만류를 뿌리치고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선언문을 박수로 채택하였다.

친애하는 고대 학생 제군!

한 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 독재의 최후의 발악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예언자적 사명을 띤 우리들 청년학도는 이 이상 역류하는 피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같은 극단의 악덕과 패륜을 포용하고 있는 이 타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의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이 상아탑에 안주치 못하고 대(對) 사회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20대는 확실히 불행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손으로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이 악랄한 현실을 방관하라.

존경하는 고대 학생 동지 제군!

우리 고대는 과거 일제하에서는 항일 투쟁의 총본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사수하기 위하여 멸공 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 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

고대 학생 제군!

우리는 청년 학도만이 진정한 민주 역사 창조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궐기하자.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①기성세대는 자성(自省)하라 ②마산사건의 책임자를 즉시 처단하라 ③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④경찰의 학원 출입을 엄금하라 ⑤오늘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 말라 등 5개항의 구호를 낭독하였다. 세대교체론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날의 고려대 시위에서가 처음이었다.

오후 1시 20분, 고려대 3천여 학생은 스크럼을 짜고 “민주역적 몰아내자”, “자유 정의 진리 드높이자”는 플래카드를 선두로 교문을 뛰쳐나와 태평로에 있던 국회의사당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대광고교 앞과 안암동 로타리 입구 등에서 경찰의 완강한 저지에 부딪쳐 앞장섰던 9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대열은 흩어졌다. 그러나 학생들은 끼리끼리 골목길을 빠져나와 오후 2시 20분 경, 1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하였다. 학생들은 마침 개최 중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면서 연행 학생 석방과 대통령 또는 내무장관이 직접 나와 부정선거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4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결의하였다.

- ① 행정부는 대학의 자유를 보장하라
- ② 행정부는 이 이상 민족의 체면을 망치지 말고 무능정치, 부패정치, 야만정치, 독재정치, 몽둥이정치, 살인정치를 집어 치우라
- ③ 행정부는 명실상부한 민주정치를 실현하라
- ④ 행정부는 이 이상 우리나라를 세계적 후진국가로 만들지 말라

학생들은 이 건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행정부의 책임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농성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의

박수로 채택하였다. 학생들이 연좌 농성을 벌이는 동안 경찰은 장소가 국회의사당 앞인 데다가 국내외 보도진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의식했음인지 강제 해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일반 시민의 합류만을 차단시켰다.

오후 4시 무렵, 시위 현장에 유진오 고려대 총장이 달려와 학생들의 해산을 종용했으나 학생들은 연행된 동료들이 석방될 때까지 해산할 수 없다고 버티었다. 그러나 연행 학생들은 유진오 총장과 내무부 장관의 약속대로 오후 6시경 전원 석방되었다. 고려대생들은 석방소식을 듣고 유진오 총장과 이 학교 출신 이철승 의원의 설득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만세와 고대 만세를 외친 다음 스크림을 짜고 어둑어둑해진 오후 6시 40분 자진해서 연좌데모를 풀고, 경찰 백차와 보도 차량들의 선도를 받으며 질서 정연하게 귀교길에 올랐다. 수많은 시민과 고교생들이 뒤를 따랐다.

행렬이 을지로 4가에 이르렀을 때 선두의 경찰 백차는 종로 4가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학생들은 종로 4가를 거쳐 동대문 방면으로 빠지려는 것으로 알았다. 오후 7시 20분 경, 행렬이 청계천 4가 천일백화점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도로 옆 골목 안에서 괴한들이 뛰어나와 시위행렬을 습격하였다. 1백여 명에 달하는 괴한들은 쇠파이프, 몽둥이, 벽돌 등 흉기로 닥치는 대로 학생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선두에 섰던 학생 수십 명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뒤따라오던 학생들은 이내 사태를 알아차렸다. “깡패들이 습격했다! 흩어지지 말고 집결하자!”고 외치면서 대항할 태세를 갖추

었다. 학생들이 맞서려 하자 괴한들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렸다. 10분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학생 2백여 명이 부상당해 쓰러졌다. 중상자 2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학생들은 울분을 삼키며 다시 학교로 향하였다. 고려대생들은 유진오 총장의 “학생들의 목적이 하루 이틀에 달성되기는 어렵다. 연행된 학생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아무쪼록 집에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듣고 밤 8시 40분 경 해산하였다.

한편 습격 현장 부근에서는 고려대생 시위를 뒤따르던 중고교생 2백여 명이 세종로까지 20여 분간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 7시 45분 경 강제 해산되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8시 10분까지 앉은 자세 그대로 농성을 벌이던 40여 명의 학생들도 8시 10분 경, 1백 50여 명의 경찰관에 의해 마침내 강제로 해산 당했다. 연좌농성 중 이들은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짓밟힌 오늘은 하늘과 땅이 분노하고 있으며 불법·공갈·협박·사기의 3.15선거에 분노한 마산시민의 그 애처로운 참극상을 주권 국민인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집권당, 위정자여!… 지금 거국적인 국민궐기의 피끓는 이 호소를 듣고… 우리 국민 앞에 늦지 않았으니 어서 사과하라”는 것이었다.

고려대생들을 습격한 괴한들은 반공청년단 종로구단 특별단부 소속 단원들인 조직 폭력배들이었다. 반공청년단 종로구 단장 임화수는 이날 낮 고려대생이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는 반공청년단원들인 폭력배 3백여 명을 중앙청 옆 반공회관에 집결시켰

다. 임화수는 부하들에게 시위대가 중앙청 쪽으로 향하면 정부지지 시위를 하는 척 하다가 시위대와 충돌하라고 지시하였다. 고려대생들이 국회 앞을 떠나자 폭력배들도 일단 해산했으나, 동대문 특별단부 소속 폭력배들만은 천일백화점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귀교길의 학생들을 습격한 것이다. 그러나 선도하던 경찰차량이 을지로 5가에서 종로 5가로 빠지지 않고, 을지로 4가에서 종로 4가쪽으로 방향을 바꾼데 대하여는 많은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4.18 고려대생들의 시위에 가려졌지만, 이날 부산의 동래고등학교에서 1천 3백여 명이, 그리고 청주에서 청주고, 청주상고, 청주공고, 청주여고생 2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날 있었던 야간 국무회의에서는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월 19일, '피의 화요일' 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다.

7

4.19, 피의 화요일 민주주의의를 향한 시민의 물결



보라! 이것이 민중을 위한 경찰-“총은 쏘라고 준 것이다”(이기봉)

4월 19일 아침 조간신문을 펼쳐 본 학생과 시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1면 머리기사로 어제 있었던 고려대 시위의 상보(詳報)가 실려 있었고, 사회면에는 강패들의 시위대 습격 전 말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더구나 일부 신문에는 뒤에 오보(誤報)로 밝혀졌지만, 고대생 1명이 강패에게 맞아 절명한 것 같다는 미확인 보도까지 게재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 날 전부터 학교별로 은밀히 시위를 준비해 오던 서울대, 연세대,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10여개 대학생들은 물론이었고, 시위계획이 없었던 학교의 학생들마저 강패습격의 보도를 보고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강패를 시켜서 시위를 습격하다니!” 자유당 정권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와 분노를 느끼며 학생들은 학교로, 시민들은 직장을 향해 각각 집을 나섰다.

오전 8시 50분, 동숭동 대학가의 서울대 문리대 게시판에 격문이 나붙었다. 문리대와 이웃한 법대·미대·교양과정부·의대·약대·치대·수의대 등 각 단과 대학 게시판에도 똑같은 격문이 일제히 나붙었다.

여기 대학의 양심은 증언한다. 우리는 보다 안타까이 조국을 사랑하기에, 보다 조국의 운명을 염려한다. 우리는 공산당과의 투쟁에서 피를 흘려온 것처럼 사이비 민주주의 독재를 배격한다.

조국에의 사랑과 염원이 맹목적 분격에 흐를까 우리는 얼마나 참아

왔는가.

보라! 갖가지의 부정과 사회악이 민족정기의 심판을 받을 때는 왔다. 이제 우리는 대학의 양심으로 일어나노니 총칼로 저지 말라. 우리는 살아 있다. 동료의 무참한 살상 앞에 안일만을 탐할소냐! 한숨만 쉴소냐! 학도여, 우리 모두 정의를 위하여 총궐기하자.

교정에 있던 학생들이 격문에 시선을 쏟고 있을 때 종로 5가 쪽에서 한 무리의 고교생 시위대가 합성을 지르며 동숭동 쪽으로 몰려왔다. 오전 8시 30분, 교문을 박차고 나온 신설동의 대광고교생 1천여 명이 경찰의 저지선에 부딪쳐 종로 5가에서 혜화동 방면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고교생들의 합성이 신호이거나 한 것처럼 서울 문리대 학생들이 마로니에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오전 9시 10분, 미리 준비된 선언문·격문·구호 등이 배부되었다. 서둘러 시위에 나가느라고 이 자리에서 낭독되지는 않았지만, 4월 혁명의 선언문 가운데 가장 잘 쓰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문리대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상아의 진리탐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薄土)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오늘 우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악과 잔학의 현상을 규탄 광정(匡正)하려는 주체적 판단과 사명감의 발로임을 땀땀이 선

명(宣明)하는 바이다.

우리의 지성은 암담한 이 거리의 현상이 민주와 자유를 위장한 전체주의의 표독한 전횡에 기인한 것임을 단정한다.

무릇 모든 민주주의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다. 그것은 또한 여하한 형태의 전제(專制)로 민중 앞에 군림하든 ‘종이로 만든 호랑이’ 같이 헤설픈 것임을 교시(敎示)한다.

한국의 일천(日淺)한 대학사가 적색 전제에의 과감한 투쟁에 거획(巨劃)을 장(掌)하고 있는데 크나큰 자부를 느끼는 것과 똑같은 논리의 연역에서, 민주주의를 위장한 백색(白色) 전제에의 항의를 가장 높은 영광으로 우리는 자부한다.

근대적 민주주의의 기간(基幹)은 자유다.

우리에게서 자유는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송두리째 박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의 혜안으로 직시한다.

이제 막 자유의 전장(戰場)엔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정당히 가져야 할 권리를 탈환하기 위한 자유의 투쟁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자유의 전역(戰域)은 바야흐로 풍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발벗었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놓단되었다.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사상의 자유의 불빛은 무식한 전제 권력의 악랄한 발악으로 하여 깜박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긴 칠흑 같은 밤의 계속이다.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시(慘屍)를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체주의 전횡의 발가벗은 나상(裸像)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저들을 보라! 비굴하게도 위하(威嚇)와 폭력으로써 우리들을 대하려 한다. 우리는 백보를 양보하고라도 인간적으로 부르짖어야 할 학구(學究)의 양심을 강렬히 느낀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打手)의 일익(一翼)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퇴 아래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의 사수파(死守派)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보라! 현실의 뒷골목에서 용기없는 자학을 되씹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른다.

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에의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

오전 9시 20분, 문리대생 2백여 명은 교문을 나섰다. 구호와 똑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시위에 앞장 세웠다. ‘데모가 이적(利敵)이나 폭정이 이적이나?’, ‘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 ‘대한민국 생명선이 대법원에 달려있다’, ‘민주 위한 학생 데모 총칼로 저지 말라’, ‘학원 자유 보장하여 구국 애족 선봉되

자’, ‘이놈 저놈 다 글렀다. 국민은 통곡한다.’

바로 뒤이어 법대·미대·약대·수의대·치대생과 나머지 문리대생이 시위에 나섰다. 모두 3천여 명의 서울대 시위대는 쉽사리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고 태평로 국회의사당을 목표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거의 같은 시각 옆 동성고등학교에서도 1천여 명이 시위에 나섰고, 9시 30분에는 서울대 사대 1천 명, 상대 2천 명이, 10시에는 고려대 4천 명, 10시 20분에는 건국대 2천 명이 각각 교문을 나섰다. 10시 30분, 서울대 문리대·법대·미대 등의 시위대가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고, 20분 뒤에는 서울대 사대·상대·건국대가 몰려들었다.

오전 11시, 동국대 2천 명, 성균관대 3천 명이 교문을 나섰다. 동국대 시위대는 11시 40분 의사당 앞에 오기가 무섭게 “동국대는 경무대로 가자!”고 외치면서 중앙청 쪽을 향해 나갔다. 그 바로 뒤를 서울대 사대와 동성고 시위대가 따랐다. 이들이 세종로를 지날 때 새로운 구호가 시위대열 속에서 터져 나왔다. “이승만 물러가라!”,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구호였다. 당초 의사당을 목표로 삼았던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대열이 어느새 경무대(청와대)를 표적으로 하는 혁명의 대열로 바뀐 것이다. 경무대를 향한 시위대의 선두에는 붉은 비단에 흰 글씨로 ‘동국대학교’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가 펄럭였다.

낮 12시, 여학생 3백여 명이 낀 연세대 5천 명, 홍익대 1천 명이 시위에 나섰고, 같은 시각 중앙대 4천 명은 한강 인도교를 건넜

다. 이 즈음 경기대, 외국어대, 단국대, 국학대, 국민대, 서라벌 예술대도 시위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 세브란스 의대, 가톨릭 의대는 모두 흰 가운 차림으로 시위에 나섰다. 숙명여대와 이화여대생들도 시위대열에 뛰어 들었다. 의과대학 시위대는 구호도 독특하여 “의학도여, 메스를 들라! 썩은 정치 수술하자”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마치 장애물 경주를 하듯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며 도심지를 향해 나아갔다. 연도의 시민들도 무더기로 시위에 합세하기 시작했다. 정오 무렵이 되었을 때는 동대문에서 신촌까지, 서울역에서 중앙청 앞까지 온통 시위대의 물결로 뒤덮여 버렸다. 시위대의 물결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또 거세졌다.

한꺼번에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경찰의 저지선은 곳곳에서 무너졌다. 경찰 수뇌부는 경무대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경찰 병력을 속속 효자동 방면으로 투입시켰다. 내무장관 홍진기를 비롯한 각료들은 오전 10시 경부터 경무대에 모여 경무대 경호 책임자 광영주, 치안국장 조인구 등 고위 경찰 간부들과 대책을 숙의하였다.

낮 12시 20분, 경무대를 목표로 삼은 동국대 시위대가 중앙청 앞의 1차 저지선과 해무청(해양수산부의 전신) 앞의 2차 저지선을 뚫고 국민대(이 당시 국민대는 경북궁 옆에 있었음) 앞의 3차 저지선까지 진출했을 때 무장 헌병 1백여 명을 실은 군 트럭 4대가 시위대를 뚫고 효자동 쪽으로 사라졌다. 계엄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 1시경, 시내 대부분의 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시위에 나설 것을 우려하여 오전 수업을 마치고는 서둘러 귀가시켰다. 그러나 강문고, 경기고, 경성전기공고, 양정고, 중앙고, 흥국고, 휘문고 학생들은 교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교생이 시위에 뛰어들었다. 다른 고교생과 일부 중학생들도 무리를 지어 시위에 합류하였다. 이때 썸 서울시내의 시위군중은 10만 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오후 1시 5분, 시위대 선두는 효자동 전차 종점까지 진출했고, 중앙청 쪽에서는 후속 시위대가 꾸역꾸역 밀어닥쳤다. 1시 30분, 시위대 선두의 몇몇 학생이 시위 저지용으로 세워 둔 소방차 3대에 올라탔다. 그 중 한 학생이 소방차 1대를 운전, 경무대 언덕길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1천여 명의 시위대가 소방차 뒤를 바짝 따랐다. 경찰은 경무대 정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언덕길 중간 지점에 최후 저지선을 펴 놓고 있었다.

오후 1시 40분, 소방차를 앞세운 시위대와 경찰의 간격이 10여 미터로 압축되었을 때 경찰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피의 화요일’이 시작된 것이다. 삼시간에 경무대 어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길바닥에는 7, 8구의 시체가 나뒹굴었다. 경찰은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시위대를 뒤쫓아 사정없이 구타하면서 끌고 갔다. 경찰의 무차별 총격에 쫓겼던 시위대는 잠시 후 동국대생을 선두로 대열을 정비하고 다시 경무대 어귀로 육박해 들어갔다. 경찰은 거듭 무차별 총격을 가하였다. 쫓기던 시위대 가운데 동성고교 등

고교생들은 교모의 가죽 끈을 턱에 걸고는 경무대를 향해 다시 돌진하였다. 죽음을 각오한 이들 고교생들의 대열에 이제 막 도착한 연세대 시위대가 합류하였다. 경찰은 또 한 차례 미친 듯 총을 난사했다. 경찰의 총격에도 불구하고 경무대 어귀에는 시위대들이 파상공세를 펼치는 듯 교대로 밀려들었다. 경무대를 향한 죽음의 행진은 오후 5시, 경찰이 시내 일원에 걸쳐 일제 소탕전을 개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과연 ‘피의 대제전(大祭典)’이었다.

시인 신동문은 「아! 신화같이 전진하는 다비데군(群)들」이라는 시에서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썼다.

마지막 발악하는
 총구의 몸부림
 광무하는 칼날에도
 일사불란 해일처럼 해일처럼
 밀고 가는 스크립
 승리의 기를 쫓은
 악의 심장 위소(危所)를 향하여
 아— 신화같이
 전진하는 다비데군들

경무대 앞 시위 희생자는 노희두(22, 동국대), 김치호(21, 서울문리대) 군 등 사망 21명, 부상 1백 72명이었다. 경무대 어귀에서 후

퇴한 시위대는 중앙청 앞과 세종로 일대를 휩쓸고 다녔다. 일부 시위대는 경비 경찰관이 달아나 버린 중앙청 청사 안으로 뛰어 들어가 서류 봉치를 창 밖으로 내던지기도 하였다.

오후 2시 경, 시위대가 완전히 석권하고 있던 세종로 네거리에는 중앙청 쪽에서 시체와 부상자를 실은 구급차들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오가고 있었다. 이 무렵 시위대 일부는 대법원 구내에 몰려가 있었고 일부는 서대문 이기봉의 집(현 4.19도서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주력은 세종로 일대에 집결해 있었다.

이때쯤 시위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호흡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희생자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길가에서 박수를 보내는 정도로 엉거주춤 소극적이던 시민들조차 피를 보자 분연히 시위에 뛰어들었다. 곳곳에서 총성이 요란한 가운데 20만 명으로 불어난 시위 인파는 도심지 거리거리에 성난 물결처럼 넘실거렸다. 여학생들은 양동이로 물을 퍼날라 시위대원들의 목을 축이게 했고, 부녀자들은 치마폭에 돌을 주워 담아 시위대에 날렸다.

오후 2시 50분, 중앙청 옆 경찰 무기고 앞길에서 연좌시위를 하던 시위대가 무기고를 향해 돌진하려 하자 무기고를 경비하던 경찰이 무차별 사격을 감행, 최정규(20, 연세대) 군 등 8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오후 3시, 정부는 국무원 공고 제82호로 오후 1시로 소급하여 서울 일원에 경비 계엄을 선포하고 육군 참모총장 송요찬 중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오후 3시 경, 서울신문사 건물에서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부근 중부소방서에서 소방차 3대가 진화작업에 나서려 하자 시위대 속에서 빗발치듯 돌을 던져 소방차를 탈취, 소방차마저 불질러 버렸던 것이다. 서울신문사는 전소되었다. 오후 3시 30분, 반공청년단이 들어 있는 반공회관도 불길에 휩싸였다.

이 무렵 태평로파출소에서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고 달아나는 경찰관을 뒤쫓아 시위대가 소공동 특무대 건물을 에워싸자 건물 안으로부터 총격이 가해져 이종량(17, 경기고 2년) 군 등이 희생되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흰 가운을 입은 의과대 학생들은 들것을 만들어 총격 현장으로 달려가 목숨을 걸고 부상자들을 구출, 병원으로 옮겼다. 각 병원에서는 부상자들이 몰려들자, 수혈할 피가 모자랐다. 병원 입구에 피를 구한다는 벽보가 붙었다. 병원 앞은 금방 헌혈을 하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병원마다 의사와 간호원들이 총동원되어 잇달아 실려오는 부상자의 구호작업에 눈 코 뜰 새 없이 움직였다.

오후 4시경, 이기봉의 집에서도 실탄사격이 가해져, 윤광현(20, 배문고 3년) 군 등 2명이 숨졌다. 이 곳에서 시위하던 최기태(20, 경성전기공고 3년) 군은 시위대를 배후에서 기습한 정치깡패들에게 동양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 그 속에서 매맞아 숨졌다.

오후 4시 30분, 정부는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혈사태가 벌어진 부산·대구·광주·대전에도 경비계엄을 선포하였다. 오후

5시, 정부는 서울 등 5개 도시의 경비계엄을 비상계엄으로 바꾸고 통금시간 연장(오후 7시~이튿날 오전 5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고문 1호, 2호를 발표하였다.

오후 5시 경, 그 동안 산발적으로 발포를 하던 경찰은 흩어진 병력을 경무대 앞에 집결시켰다. 뒤이어 소총,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관 3백여 명은 기관총까지 장비된 장갑차 2대를 앞세우고 일렬횡대로 중앙청 앞에서부터 일제 사격을 퍼 부으며 시위대 소탕에 나섰다. 4월혁명의 최연소 희생자 전한승(12, 수송초등학교 6년) 군은 태평로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시위대에 박수를 보내다가 경찰의 일제 사격에 목숨을 잃었다.

오후 5시 20분, 을지로 입구의 내무부에서도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서현무(22, 중앙대) 양 등 7명이 숨졌다.

완강하던 시위대도 맨 주먹으로는 더 이상 일제 사격 앞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 무렵부터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면서 도심지에서 점점 밀려났다.

한편 일부 시위대는 눈에 띄는 차량들을 닥치는 대로 징발, 차에 올라타고 경찰로부터 탈취한 몇 자루의 소총으로 무장한 채 길을 누볐다.

오후 6시 40분 경, 소방차와 트럭 등에 분승한 시위대가 동대문 경찰서 앞을 지날 때 경찰서 안에서 발포, 다시 1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기동화(機動化)한 시위대는 밤 8시 경, 40여 대의 차량에 분승하

여 동대문에서 청량리에 이르는 연도의 파출소를 모조리 불질렀으며, 파출소에서 탈취한 카빈 소총 27정으로 무장, 한 때는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였다. 또 다른 기동시위대는 돈암동과 미아리 일대를 누비다가 성북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발포로 또 6명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동화했던 시위대는 미리 중랑교 근방에 집결해 있던 계엄군이 밤 10시를 기해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시내로 진주하자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다.

무장 시위대원을 비롯한 일부는 의정부 방면으로 나갔다가 창동지서의 경찰과 잠시 총격전을 벌인 뒤 자정 무렵 급거 출동한 계엄군에 쫓겨 고려대 뒷산으로 몰렸다. 20일 새벽 1시, 계엄군에 포위된 시위대는 고려대 구내로 내려왔다. 이들은 희생자 시체 1구를 둘러메고 이곳저곳 이동하다가 막바지까지 물리게 된 데다가 일부는 무장까지 하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학교 구내에는 통금에 발이 묶인 시민들도 뒤섞여 모두 1천 5백 명이나 몰려 있었다. 군과 시위대 중 어느 한 쪽에서라도 발포하면 엄청난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긴장된 상황이었다. 이 때 계엄군의 조재미 사단장은 장교 2명만 대동하고 학교로 들어가 강당 안에 태극기로 덮여진 희생자 앞에서 정중히 조의를 표하였다. 착잡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던 시위대는 그 자리에서 순순히 무기를 버리고 해산 중용에 응했다. 계엄군은 시위대 가운데 약 30명을 연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귀가조치 시켰다. 이 가운데 10대 소년 2백여 명은 철조망을 뚫고 거리로 뛰어나와 20일 아침

6시 45분 경부터 다시 과격한 시위를 벌이다가 40분 만에 해산되었다. 서울의 4.19 시위는 이렇게 가라앉았다.

송요찬 계엄사령관은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19일 시위가 가라앉자 밤사이에 계엄군을 동원, 시가지를 정리·정돈시켰다. 이튿날 아침 시가전이 휩쓸고 간 뒤의 서울 거리는 계엄군의 밤을 새운 작업으로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다.

4월 19일의 시위는 서울에서만 이렇게 치열하였던 것이 아니라 거의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일어난 전국 규모의 시위였다. 부산에서는 경남공고·테레사여고·부산상고 등 고교생들의 시위가 일어나 시민들과 합세, 격렬하게 전개되더니 계엄이 선포된 오후 5시 경 부산진경찰서와 동부산경찰서에서 발포, 19명의 희생자를 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와 광주고 학생, 그리고 시민들 수천 명이 시위를 벌이다가 밤 9시 25분 경 경찰의 발포로 8명이 희생되었다. 대구·대전·전주·청주·인천에서도 시위가 전개되었지만 다행히 경찰이 발포를 하지 않아 희생자는 생기지 않았다. 20일에도 시위는 계엄속의 서울, 대구, 광주를 비롯 전주, 인천, 이리, 수원에서 일어났다. 22일에서 25일까지 인천, 군산, 포항, 춘천, 영주, 김해에서 그리고 워싱턴에서도 재미 유학생의 시위가 있었다. 25일 마산에서는 이색적인 할머니 시위가 있었고 시민 3만여 명이 합류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었다. 20

일 오후 5시에 있었던 담화에서 그는 “나의 전 생애를 바쳐온 애국적인 한국민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고 거의 믿지 못할 일”이라고 했다. 23일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 사퇴를 고려하겠다”는 어정쩡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오히려 국민의 격분만 더 불러일으켰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직에만 전념하겠다”면서 서울대 부속병원으로 4.19 부상자를 위문하여, 그 선에서 사태가 진정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3일 장면 부통령이 “3.15부정선거로 인하여 3천만 동포의 울분은 드디어 절정에 달하고, 마침내 민족의 정화인 청소년 남녀들이 불법과 불의에 항쟁하다가 총탄에 쓰러져, 그 고귀한 피가 이 강산을 물들게 됨을 볼 때에 하루라도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는 비통한 심경에 다다라” 부통령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23일의 성명으로 국민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이 일자 이기붕은 24일에는 마침내 일체의 공직사퇴를 선언하고 일가족이 경무대로 피신하였다.

8

인승만 정권의 붕괴 4.25교수단 시위와 민권의 승리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서울 시내 각 대학교수 258명 계엄령 하에서 시위행진(1960.4.25)

4월 19일 이후, 계엄사령부의 민심 수습 노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20일, 송요찬 계엄사령관은 치안국장에게 공한을 보내, 시위 학생이나 시민을 수사할 때 감정을 갖고 하지 말 것, 인권을 존중, 고문을 하지 말 것, 조속히 흑백을 가려 죄상이 경미하거나 혐의가 없는 사람은 즉시 석방할 것을 지시하였다. 21에는 계엄사령관이 직접 “시위대는 폭도가 아니다”라고 언명하는가 하면 22 일에는 학생 대표 12명과 면담, 학생들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한편 4월 19일 이래 숨가쁘게 움직이던 정국은 이승만이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이기붕이 공직사퇴를 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함으로써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체제만은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정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던 4월 25일 오후, 3백명 가까운 대학 교수들이 이승만의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를 결행하였다. 지성과 양식을 대표하는 교수들의 시위는, 조금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4월혁명의 수레바퀴를 급격하게 돌려 놓았고 4월혁명에 결정적이고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교활하게 적정한 선에서 사태수습을 해 나가려던 자유당 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다.

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은 4월 20일부터 조용히 일기 시작하였다. 4월 19일 학생들의 엄청난 희생을 지켜 본 교수들은 죄없는 학생들만 희생시켰다는 자책감 때문에 여간 괴롭지 않았다. 평소 뜻이 통하고 연락이 있었던 교수들끼리 두 세 사람씩 만나 은밀히 행동 방향을 협의했던 것이다. 이들은 의논 끝에 각 대학의 교수

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강력한 내용의 시국수습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종우(고려대), 이희승(서울대), 정석해(연세대), 조윤제(성균관대) 등 각 대학의 중심 교수들은 4월 25일 오후 3시 서울대 의대 구내에 있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전체 대학의 교수회의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교수들이 4월 25일을 교수회의 날짜로 택한 것은 이 날이 서울대의 봉급 지급일이어서 많은 교수들이 학교에 나오리라는 예측도 작용하였지만 이와 함께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도 봉급날이기 때문에 별달리 당국의 의혹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배려도 있었다. 당시 서울 일원은 25일 오전에 비상계엄이 경비계엄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계엄상태 아래 있었던 것이다.

예정된 시간에 모인 교수들은 당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5배 이상이나 많은 2백 58명이었다. 임시의장 정석해 교수의 주재로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희승 교수 등 9명이 시국선언문 기초위원이 되어 별실에서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오후 5시 30분, 이승만의 대통령직 하야를 골자로 하는 시국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였다.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 4.19 의거는 이 나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계기다.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정(糾正)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이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우리는 이제 전국

대학교수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꺾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2.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곡해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에 대한 모독이다.

3.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학생 데모에 총탄과 폭력을 기탄없이 남용하여 대량의 유혈 참극을 빚어 낸 경찰은 '민주와 자유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 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私兵)이다.

4.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써 이 민족적인 대참극과 치욕을 초래케 한 대통령을 위시하여 여·야 국회의원 및 대법관 등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과 학생들의 분노는 가라앉기 힘들 것이다.

5. 3.15 선거는 부정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6. 3.15 부정선거를 조작한 주모자 등은 중형(重刑)에 처하여야 한다.

7. 학생 살상의 만행을 위에서 명령한 자 및 직접 하수자는 즉시 체포·처벌하라.

8. 모든 구금된 학생은 무조건 석방하라. 실령 구금된 학생 중에서

파괴와 폭행의 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료의 피살에 흥분하여 일으킨 비정상 상태의 행동이요, 파괴와 폭행이 그 본의가 아닌 까닭이다.

9.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 축재한 자는 관·군·민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적발 처단하여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라.

10. 경찰의 중립화를 확고히 하고 학원의 자유를 절대 보장하라.

11. 학원의 정치 도구화를 포기하라.

12.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사이비 학자와 정치 도구화된 소위 문화·예술인을 배격한다.

13. 학생 제군은 38선 이북에서 호시탐탐하는 공산도배들이 제군들의 의거를 1백 퍼센트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라. 또한 38 이남에서는 반공의 명의를 도용(盜用)하는 방식으로 제군들의 피를 정치도구화 함에 조심하라.

14. 시대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여, 학생들은 흥분을 진정하고 이성을 지켜 속히 학업의 본분으로 돌아오라.

시국선언문 채택이 끝난 뒤, 동국대 김영달 교수의 “폐회하는 대로 시위에 나섭시다”는 긴급동의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교수들은 바로 시위준비에 들어갔다.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 각 대학교수단’이라는 플래카드의 글씨는 성균관 대학교 임창순 교수가 썼다. 오후 5시 50분, 이 플래카드를 들고 교수들은 거리로 나

섰다. 각 대학 도서관과 연구실에 있던 대학생들이 하나둘 달려나와 스승들의 행렬을 말없이 따랐다.

질서정연한 시위 행렬이 종로 4가를 지날 무렵, 뒤따르는 학생과 시민들은 7~8천 명을 넘어섰고, 종로 화신백화점 앞에 이르렀을 때는 1만 명을 헤아렸다. 계엄군이나 경찰의 제지는 없었다. 오후 6시 50분 경 교수단은 이 날의 목표지점인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하여 시국선언문을 다시 한 번 낭독하고, 만세 3창과 애국가를 부른 뒤 해산하였다.

교수단의 시위는 끝났다. 그러나 군중들은 통금 직전인데도 흠어지려 하지 않았다. 이 때 중앙청 쪽에서 탱크 2대가 시위군중을 해산시키려고 다가왔다. 군인들이 착검을 하고 강제 해산의 태세를 취하자 군중들은 오히려 칼끝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한 학생이 혈서로 쓴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며 “쫓 테면 쫓라!”고 대들 듯이 나섰다. 군중 속에서 “국군 만세!”라는 외침이 들렸다.

군인들이 주춤하고 있는 동안 화신 쪽과 시청 쪽에서 또 다른 시위대가 몰려왔다. 시위 군중의 숫자가 불어나자 계엄군은 밤 8시 경부터 최루탄을 쏘기 시작했다. 군중들은 그러나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와 전우가 등을 불렀다. 방독 마스크를 쓰고 있던 사병 5, 6명도 끝내 함께 울어 버렸다.

최루탄 발사가 중지되었다. 어느 틈에 소년들이 탱크 위로 올라가 “국군 만세”를 외쳤다. 시위대와 계엄군은 자연스럽게 한 덩어

리가 되어 갔다. 시위대의 일부는 서대문의 이기봉 집으로 몰려갔다. 시위대가 정문 옆의 경비실을 부수고 있을 때 계엄군이 진압하러 달려 왔다. 시위대가 계엄군을 환호와 박수로 맞이하자 군인들은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듯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시위대가 기세를 올리며 이기봉의 집 안으로 쳐들어 가려 하자 돌연 집안에서 총격이 가해져 시위대원 여럿이 다시 희생되었다. 이곳의 시위대는 밤 10시 경 계엄군에 의해 해산되었다.

다른 시위대는 임화수의 집(낙원동)과 임화수 소유의 평화극장(종로 5가), 이정재의 집(연지동) 등을 파괴하였다. 이정재의 집은 전소되었다. 이날 밤 11시 40분, 시위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서울 시내에 시위대의 함성과 이들을 해산시키려는 계엄군의 공포소리로 늦도록 소란스러웠다.

25일 밤 9시, 이승만은 수석 국무위원인 외무장관에 허정, 내무에 이호, 법무에 권승렬을 임명했다. 야간 국무회의에서는 26일 오전 5시를 기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기로 하였다. 마지막 안간힘이었다. 26일 새벽 1시 송요찬 계엄사령관은 데모 군중에 발포하지 말 것을 계엄군에 지시하였다.

그러나 4월 26일은 이른 새벽부터 터져 나온 시위대의 함성소리와 함께 날이 밝았다. 지난 밤 의사당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30여 명의 시위대가 통금해제 시간인 새벽 5시부터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였다. 오전 8시 경, 출근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거리마다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묵묵히 도심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

민들은 그러나 약속이나 한 듯이 직장 대신 세종로 네거리로 모여 들었다. 오전 9시 경에는 이미 3만여 명 이상이 세종로에 집결했고 군중의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부쩍부쩍 늘어났다. 비상계엄으로 군의 경계태세가 삼엄해진 것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때 몇 대의 트럭에 분승한 소년 시위대가 세종로 네거리로 질주해 왔다. 소년들은 “국군은 우리 편이다!” 라고 외치면서 세종로에 포진하고 있던 탱크 위로 하나 둘씩 기어 올라갔다. 이 곳에 배치되어 있던 3대의 탱크는 어느 새 소년들로 새까맣게 덮여 버렸다.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시위대열을 이루면서 오전 9시 40분 경, “경무대로 가자”는 소리와 함께 중앙청 쪽으로 행진하려 하였다. 계엄군은 약 3분간 최루탄과 공포를 발사하면서 해산을 시도했으나 시위군중은 흩어지기 보다는 계속 늘기만 하였다. 오전 10시 경, 10여만으로 불어난 시위군중이 세종로에서 중앙청까지 도로를 꽉 메우고 함성으로 들끓는 가운데, 4월 19일 날 급우를 잃은 수송국민학교 어린이 1백여 명이 ‘국군 아저씨들, 부모형제에게 총부리를 대지 마세요’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이색적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의 일부는 이 때 서대문 이기봉의 집을 습격하고 가구들을 끄집어 내 불을 질렀다.

한편 경무대에서도 이 날 아침 숨가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랫동안 ‘인(人)의 장막’에 둘러싸여 사태의 진실에 접하지 못하던 이승만은 4.19 유혈시위와 4.25 대학교수단의 시위 등으로 민심의 소재를 뒤늦게 깨닫기 시작, 26일 아침 일찍 대통령직을 버

릴 결심을 하고 비서관에게 하여 성명을 구술, 오전 10시 30분 안에 발표하기에 이르른다. 하여 성명을 구술하고 있을 때, 계엄사령관 송요찬이 들어와 이대로 두면 대규모 유혈 사태가 또 다시 불가피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이승만은 송요찬에게도 하여 의사를 비치고 찬동을 얻자 성명문을 마저 구술하였다.

구술을 마친 이승만은 10시경 매카나기 주한 미 대사와 매그루더 주한 유엔군 사령관을 불러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계엄군의 선무용 스피커가 이승만의 대통령직 하야를 처음 알린 것은 10시 20분이었다. 이어 10시 30분 정각, 조금 전부터 중대 발표를 되풀이 예고하던 라디오에서는 역사적인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 발표되었다. 마침내 민권이 승리한 것이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 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나에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하고자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3.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4.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 발표되자 세종로 네거리를 비롯한 도심지는 열광적인 환호와 만세 소리로 뒤덮여 버렸다. 국회 의사당 앞에서는 즉석에서 군중대회가 열리는가 하면, 시위대와 계엄군 차량들은 연도의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시가지를 질주하였다. 시민들은 이렇게 민권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혼란과 열광의 도가니로 바뀐 서울 시내에서 10대 소년들은 파고다 공원으로 달려가 이승만의 동상을 파괴하여 새끼줄에 묶어 길거리로 끌고 다녔다. 신당동 최인규의 집도 어느 사이 불길에 휩싸였다.

한편 이 날 오전 10시 30분, 제2의 대규모 시위를 논의하고자 한양대에 모였던 27개 대학 학생 대표들은, 이승만의 하야 소식을 듣고는 이제는 시내 질서를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민권은 승리했다’, ‘질서를 지킵시다’ 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도심지로 행진하여 군중들의 흥분을 진정시키

는 한편 빗자루를 들고 나와 거리를 청소하기도 하였다. 대학생들의 질서 유지 호소가 주효하여 시가지는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주의의 제단에는 더 많은 희생이 필요했음인가. 오전 11시 15분경 동대문경찰서 앞에서는 “정치깡패를 내 놓으라”면서 시위하던 군중에게 경찰이 다시 발포하여 2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성난 군중들은 경찰서 현관을 부수고 난입하여 동대문경찰서를 불질렀다. 또 이날 밤에는 인천에서 군중들이 인천경찰서를 습격하다가 2명이 총격에 희생되었다.

이날, 부산·대구·김천·포항·대전·목포·여수·임실·밀양·울산·제천·목호·원주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이승만의 하야 성명 발표 후 정국은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갔다. 오후 2시 20분, 대법원은 1년 가까이 끌어오던 『경향신문』 정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경향신문은 만 1년 만에 복간되었다.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는 여야간에 2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이승만의 즉시 하야 등 4개항의 시국 수습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할 것.
2. 3.15 정부통령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3. 과도 내각 하에 완전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한다.
4. 개헌 통과 후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즉시 실시한다.

이같은 국회 결의에 따라 이승만은 이튿날인 27일 정오 공보실을 통해 “나 이승만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라는 짤막한 공식 사임서를 발표하였다. 사임서는 즉각 국회에 제출되어 오후 2시에 수리되었다. 이로써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제1공화국은 만 11년 8개월 12일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어 수석 국무위원인 허정 외무장관이 대통령 권한 직무대행에 취임하였다. 허정은 취임 성명에서 과도정부의 당면과제로서 “①정부통령 선거는 국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경찰중립화 법안을 추진한다. ③과도정부의 각료는 비정당인으로 구성한다. ④ 3개월 이내에 새정부를 구성한다” 등 4개항을 발표하였다. 4월혁명을 수습하기 위한 과도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이승만은 4월 28일, 경무대를 떠나 이화장으로 집을 옮겼다. 이날 이기붕 일가의 자살사건이 일어났다. 이승만은 1960년 5월 29일,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다가 1965년, 그곳에서 눈을 감았다.

한편 6월 15일,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제2공화국 수립의 제도적 장치가 일단 마련되었다. 그러나 ‘혁명과업을 수행’ 할 새 체제가 원내 다수의석을 점유하고 있던, 그러나 ‘혁명의 대상’인 자유당 소속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7월 29일, 새 헌법에 따른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민주당

이 압도적으로 석권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해묵은 신·구파의 파벌싸움을 재연하더니, 8월 19일, 민주당 신파의 장면이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을 받아 제 2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결국 장면 정권은 출범 때부터 국민의 지지기반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4.19혁명의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로부터 30여년에 걸친 권위주의 군사통치가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9

4.19,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우리도 누나따라(마산)

집회와 시위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의사나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행위이다. 더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 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호받는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는 본질적으로 단식과 마찬가지로 비폭력 저항의 한 방식이다. 비폭력 저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항의 의지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비폭력적 방식은 투쟁대상이 단식 또는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사람을 존경하고 아끼는 상황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인도의 간디가 일생에 걸쳐 전개한 단식투쟁은 무려 21번이었다. 간디의 단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투쟁의 대상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간디는 1924년의 한 편지에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단식하지 말라고 썼다. 또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상대로 단식하지 말라고 했다.

시위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알고,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정권을 상대로 했을 때 시위는 성공할 수 있다. 4.19혁명의 과정에서 희생이 컸던 것은 자유당 정권이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국민을 두려워하기는 커녕 시민을 짓밟는 독재정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권을 상대로 한 시위는 이미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이 나라 민주주의 제단에 자신이 기꺼이 그 제물이 되겠다는, 헌신에의 정열이 없이는 4.19와 같은 시위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 4.19혁명

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 4.19혁명의 전 과정은 물론 그 이후에 까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전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마산에서 20여 일 동안 마산을 헤매며 만나는 사람마다 김주열을 찾아 달라고 호소하며 ‘김주열 미스터리’를 마산 시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켰던 김주열의 어머니 곽찬주 여사는, 마산의거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하여 유가족을 대표한 인사말씀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남은 3형제를 다 바쳐도 아까울 것 없다”고 하여 장내를 숙연케 하였다. 어진 아들의 뒤에는 어진 어머니가 있다는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증거한 것이다. 곽 여사는 이같은 모성애로 네 번째 소파상을 수상하였다.

한성여중 2학년 재학 중, 4월 19일 시위 버스를 타고 시위를 하다가 오후 7시경 미아리고개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진영숙 양이 남긴 유서는 그것을 읽는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한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니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하여 손이 잘 놀려지지 않는군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만 그치겠습니다.

서울대 문리대 3학년에 재학 중 4월 19일 시위로 희생된 김치호 군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과학자를 지망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다. 그는 4월 19일 등교하다가 문리대 정문에서 형사들에게 시위 주모자로 몰려 시경에 연행되었다. 그곳에서 무수히 구타당한 뒤 훈방된 그는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해 있던 시위에 참가, 고교생 10여 명과 함께 곧장 경무대로 달려가다가 경찰의 무자비한 난사로 복부에 3발의 총탄을 맞았다. 출혈이 심한 상태에서 그는 수도육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김 군의 옆 자리에는 고교생 8명이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군의원은 가장 위독한 김 군을 먼저 수술하려 했으나 김 군은 “제발 저 어린 학생들부터 살려 달라”면서 끝내 수술을 사양하였다. 군의원은 김 군의 뜻에 따라 고교생들을 먼저 돌본 다음 김 군을 치료하려 했으나 그 때는 이미 김 군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김 군은 군의원과 간호장교들이 눈물로 지켜보는 가운데,

데, 다음날 새벽 6시 숨을 거두었다.

그는 몇 권의 일기책을 남겼는데, 일기책에 끼어 있는 교회 주보에는 이런 영어로 된 낙서가 적혀 있었다. “하느님이 부르실 때 사람은 죽는 것이다”(Man will die when He calls).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그의 형(김치선)은 그 일기책 4월 19일 페이지를 열고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했다.

“내 아우 치호는 4.19 학도의거에 참여하여 22세의 한국 청년으로 용감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화여대와 숙명여대의 학생들은 개별적으로는 4월 19일의 시위에 많이 참여했다. 그러나 학교 단위로는 참가하지 못했다. 이를 통탄해 하는 어느 학부형 아버지의 글이다.

그 슬픈 젊은이들 가운데 내 딸의 모습이 끼어있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수십 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내 딸의 학교가 홀로 보여 주었던 교풍이었던 말인가... 내가 네게 바라는 것은 ‘비굴한 행복’보다 ‘당당한 불행’을 사랑할 줄 아는 여성이 되어지이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서울의 거리가 온통 너와 같은 젊은 세대의 불길로 거세게 타 오를 때, 옥아!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말이나? 그 ‘피의 폭풍’이 강산을 휩쓸고 마침내 낚고 썩은 것들이 너희들 젊음 앞에 굴복을 하고 만 그 시각에 나의 피를 받은 너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 불덩어리들 속에 타오르는 심장의 핏빛이 네 피와는 다

르더란 말이나? 그 암흑을 밀어 나가는 북소리들이 네 목소리와는 다르더란 말이나? 너는 정녕 그 젊은 기수들 속에 네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애인 한 사람 없었더란 말이나?

서글픈 일이다. 분한 일이다. 네 젊음을 스스로 모독한 시대의 고아가 되고 말았구나! 어찌 네 가슴에 뺨지를 달고 이 태양 아래 활보할 수 있으랴! 총탄에 넘어진 아들 딸을 가진 부모들의 비통함보다 털끝 하나 옷자락 하나 찢기지 않은 너를 딸로 가진 이 애비의 괴로움이 더 깊고 크구나!

인옥아! 어서 뺨지를 떼고 교문을 나와 병원으로 달려가거라. 죄인과 같은 부끄러움과 겸손한 태도로 아직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그 젊은 영웅들 앞에 네 피를 아낌없이 쏟아라. 그 젊은이들이 너 같은 여자의 피라도 받아 준다면...

1960년 3월 13일, 문경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33명의 학생들이 경찰에서 취조받고 돌아오자 그들 앞에서 최배근 교장은 이렇게 훈화를 했다.

내 오늘 학생들의 심정과 기백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들은 좀 더 자숙하여 열심히 공부하다가 좋은 때를 기다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현실의 옳고 그릇된 것은 이후 양심적인 사학가들에 의하여 정당한 비판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오로지 힘을 양성하자. 오늘의 암

흑을 물리칠 기백을 양성하여 내일 조국과 민족의 초석이 되자.

3월 17일의 성남고등학교 시위로 3명이 3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가 석방된 뒤 김석원 교장은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의 훈화를 했다. “학생들의 정의는 막을 길이 없다. 정의감마저 없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4월 18일, 고려대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을 때, 달려온 유진오 총장은 이렇게 연설했다.

우리 학생들이 불의와 싸우기 위하여 꺾기한 것을 보니 감개무량하다. 학교 책임자로서 학생 계급들이 사회에 편재해 있는 불의에 대해 항거하는 용기는 칭찬할 만하다. 학원을 버리고 거리로 나온 것은 유감됨이 있으나 지성인다운 이성을 잃지 않는 시위를 한 데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

4월혁명에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참가하였다. 사망자 중에는 전한승(수송초등학교 6년), 정태성(금호초등학교 6년)군 등 초등학생도 있었다. 4월 26일에는 수송초등학교 어린이 1백여 명이 ‘국군 아저씨, 부모형제에게 총부리를 대지 마세요’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 어린이(수송초등학교 강명희)의 눈에 비친 4.19를 보자.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
이 왜 피를 흘렸는지.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
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릅니다.

다음은 이 어린이의 시이다.

아... 슬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며는
달음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 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자꾸만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10

4.19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운명



1987년 4.19혁명 27주년 기념식(민통련 주최). 4.19국립묘지

1960년 4월 19일, 이 나라 젊은이들의 혈관 속에 정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능히 던질 수 있는 피의 전통이 용솨음치고 있음을 역사는 증언한다. 부정과 불의에 항쟁한 수만 명 학생대열은 의기(義氣)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를 바로 세웠고, 민주제단에 피를 뿌린 185위(位)의 젊은 혼들은 거룩한 수호신이 되었다.

“해마다 4월이 오면 접동새 울음 속에 그들의 피맺힌 하소연이 들릴 것이요 해마다 4월이 오면 봄을 선구하는 진달래처럼 민족의 꽃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되살아 피어나리라.”

북한산 아래 백운대 기슭의 4.19묘지 입구에 서 있는 4월 학생혁명 기념탑의 비문(碑文)이다. 비문의 구절처럼 4.19묘역에 잠들고 있는 젊은 그들의 하소연이 들리기 때문일까. 해마다 4월이 오면 대학가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나라의 민주화와 민중의 자각을 촉구하는 거센 운동이 일어나곤 했다. 그래서인지 4.19 당시는 물론 해마다 4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마치 4.19의 혼이 있다면 “돌아와 탑을 부수라”고 말하기라도 하듯이 해마다 4.19 선언은 발표되었다.

4월혁명은 그 이듬해에 있었던 5.16군사 쿠데타와 그 이후 30여년에 걸친 군사정치문화 아래서, 마치 4.19의 혼이 북한산 자락 접동새 울음 속에 갇혀 있어야 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유폐되어 있었다. 4.19는 혁명이 아니라 의거로 폄하되었고, 4.19의 정신은 집권군부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잠재워져야 했다. 4.19와 그 정신은 기림의 대상이 아니라 억제와 감시의 대상이었다. 4.19가 혁명

의 위상을 되찾고, 4.19묘지가 국립묘지로 성역화된 것은 1993년 4월 19일의 일이었다. 4.19가 역사 속에서 그 본연의 모습으로 평가되고, 부활·복권되기까지는 무려 30여년의 세월이 걸려야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서라 할 이기백의 『한국사신론』은 4.19혁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4월혁명은 맨 주먹밖에 가지지 못한 민중이 강압적인 정권을 타도하는데 성공한 한국사상 최초의 혁명이었다. 기성세대나 기성 권위에 대하여 불신을 품고 있던 학생들이 4월혁명의 선두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 혁명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4월혁명은 독재정치와 부정축재에 반항하는 국민의 힘이 젊은 의기를 통하여 발현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밝은 전망을 던져 주었다.

이는 4.19가 혁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속에서,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내린 역사적 평가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여기서는 “맨주먹 밖에 가지지 못한 민중이 강압적인 정권을 타도하는데 성공한 한국사상 최초의 혁명”이라고 하여, 4월혁명이 민중혁명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대에 성공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혁명이냐 아니냐가 가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혁명 주체세력(학생)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명이 아니라는 주장도 설

득력이 없다.

4월혁명은 해방 후 수립된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대와 부정이 성공한 혁명이었다. 혁명에 대한 평가는 그 직접적인 계기를 이룬 쟁점만으로 평가될 일이 아니다. 4.19전후의 맥락과 4.19혁명의 전개과정을 통찰해 볼 때, 4월혁명의 이념은 '반독재 민주, 반외세 민족자주, 반분열 통일, 반부패특권 민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4월혁명의 이념과 정신은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대와 부정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제1공화국의 잘못된 출발에 대한 거부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 세워졌어야 할 공동체의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 4.19혁명은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거거서부터 시작해야 할 고향이요 시원(始源)인 것이다.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상이요 목표인 것이다. 4.19는 이 민족의 정기요 생명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이라고 하고 있다. 3.1운동과 4.19 민주이념이 우리가 지향하고 또 수호해야 할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3.1운동에서 보여준 자주독립의 정신과 그로부터 비롯된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법통을 잇고, 4.19 민주이념을 건국의 정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과연 3.1운동과 4.19혁명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위대성을 세계와

인류 앞에 보여준 쾌거였다. 3.1운동이 한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것이었다면, 4.19혁명은 이 나라 민주역량을 온 세계 인류에 확인시켰다. 3.1운동과 4월혁명은 다 같은 비폭력 무저항운동으로서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4.19혁명은 그 이후 전개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물론 터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민주화운동에 그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4월혁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4.19는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 숨결이요 정신이다.

우리 사회에는 4.19혁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의 길을 걷는 한 축이 의연히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공동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과 민족, 민주, 민중, 통일을 지향하는 양심세력과의 각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4.19혁명이 계속 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4.19혁명은 민족의 통일에 이르고 우리 민족이 더불어 함께, 인간답게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룩할 때까지는 아직도 미완의 혁명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아직 4.19혁명의 깃발을 내릴 때가 아니다. 4.19 당시 시인 박두진은 “아직 우리들의 깃발은 내린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시를 썼다. 그렇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우리들의 깃발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그 붉은 선혈로 나무끼는
우리들의 깃발을 내릴 수가 없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절규를 멈춘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 피불로 외쳐 뿜는
우리들의 피외침을 멈출 수가 없다.

불길이어! 우리들의 대열이어!
그 피에 젖은 주검을 밟고 넘는
불의 노도(怒濤), 불의 태풍, 혁명에의 전진이어!
우리들 아직도 스스로도 못 막는
우리들의 피 대열을 훔을 수가 없다.
혁명에의 전진을 멈출 수가 없다.

민족.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어.
우리들의 젊음들.
불이어! 피여
그 오오래 우리에게 썩어내린

악으로, 불순으로, 죄악으로 숨어 내린
그 면면(綿綿)한
우리들의 핏줄 속의 썩은 것을 씻쳐내는
그 면면한
우리들의 핏줄 속에 맑은 것을 솟쳐내는,
아 피를 피로 씻고,
불을 불로 사뤄
젊은이어! 정(淨)한 피여! 새 세대여!
너희들 이미 일어선 게 아니냐?
분노한 게 아니냐?
내달린 게 아니냐?
절규한 게 아니냐?
피흘린 게 아니냐?
죽어간 게 아니냐?

아, 그 뿌리워진
임리(淋漓)한 붉은 피는 곱디 고운 피꽃잎,
피꽃은 강을 이뤄,
강물이 갈았으면 하늘 푸르름,
영혼들은 강산 위에 햇별살로 따수어,
아름다운 강산에 아름다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에 아름다운 겨레를,
아름다운 겨레에 아름다운 삶을
위해,
우리들이 이루려는 민주공화국
절대공화국. 철저한 민주정체
철저한 사상의 자유,
철저한 경제균등
철저한 인권평등의,
우리들의 목표는 조국의 승리
우리들의 목표는 지상에서의 승리
우리들의 목표는
정의, 인도, 자유, 평등, 인간애의 승리인,
인민들의 승리인
우리들의 혁명을 전취할 때까지,

우리는 아직
우리들의 피짓발을 내릴 수가 없다.
우리들의 피외침을 멈출 수가 없다.
우리들의 피불길,
우리들의 진진을 멈출 수가 없다.

혁명이여!